

성도의벗 7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3 연차 대회 보고



차 례

성도의 벗 7 1983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읽읍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콤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화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교문

엠 러셀 벨라도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3년차 대회 보고..... 2
 주님은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4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라”.....닐 에이 맥스웰 장로 ...10
 성찬.....데이비드 비 화이트 장로 ...16
 단합.....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21
 부활의 증거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24
 1982년도 통계 보고프랜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서기 ...28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윌로드 지 에드링 ...30
 왕국의 열쇠브로스 알 맥콤키 장로 ...31
 뿌리와 가지하트만 랙터 이세 장로 ...35
 인생의 드라마에서의 용기로이든 지 데릭 장로 ...3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제임스 페러더어 장로 ...42
 예언자를 영접함.....로렌 시 던 장로 ...46
 즉시 행하십시오.....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48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제프리 알 홀런드 브리감영 대학교 총장 ...52
 고귀한 세대딘 엘 라는 장로 ...57
 진흙 발과 흰 사쓰.....매튜 에스 홀런드 형제 ...62
 풍요로운 가정 생활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65
 신권에서의 부름: “내 양을 먹이라”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75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을 이겨냄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75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79
 익명의 봉사 행위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83
 회개.....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87
 자신이 누구인지 알비터 엘 브라운 감독 ...91
 창조주와 구세주마크 이 피터슨 장로 ...9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총판리 역원.....100
 자유 의지와 통제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102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엠 러셀 벨라도 장로...106
 용서는 신성함.....디오도어 엠 버튼 장로...109
 신성 모독과 불경.....테디 이 브루어론 장로...114
 보다 높은 영성에 오름.....제이콥 디오거 장로...118
 자녀 양육.....엘 톨 페리 장로...122
 “선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128
 대회와 관련된 뉴스.....131
 지역 지도자 간증.....린 찬태 대구 스테이크 부장...135
 지역 소식.....137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호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6호, 제19권 제7호
 통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평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3년
 제153년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 털

STOCK NO. PBMA0595KO PRINTED IN SEOUL, KOREA 7/83 International magazin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3 연차 대회 보고

1983년 4월 2-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킴** 블 대관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이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장관은 금년도 4월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나 대관장님은 모임을 감리하시며 길 건너에 있는 호텔 아파트에 계십니다. 거기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모든 절차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그분은 매일 정장을 하고 계시지만 쇠약하시어 몸이 피로하십니다. 그분은 최근에 88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노환과 과거에 받았던 외과 수술로 인해 누적되어 온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신 모범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교회 전체가 그분의 나팔 소리에 맞춰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로서 그분의 시현과 계시는 국적, 인종, 신분에 관계없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할 데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제153차 연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킴블 대관장과 대관장단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모두 병환으로 태

버내클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롬니 부대관장님도 또한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했다. “그분 역시 노환과 수십년 동안 주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활동하시는 가운데 노령으로 인한 노쇠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연차 대회에서 가졌던 다섯 번의 모임은 힝클리 부대장관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 연차 대회는 토요일에 3번과 일요일에 2번을 포함해서 모두 5번의 모임이 있었다. 토요일 모임은 오전, 오후 모임 그리고 저녁 신권 모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요일 모임은 오전, 오후 모임이 있었다. 전에 광고한 대로 토요일 오전 일반 복지 모임은 없었으며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은 종전과는 달리 오후 6시에 시작되었다. 또한 사람이 너무 많아 태버내클에 입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셈블리 홀의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금요일에는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을 위한 지역 대표 세미나가 오후 및 저녁에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부름받은 212명의 교

회 지역 대표들을 위한 지도자의 권고에 역점을 두었다.

대회 진행이 폐쇄 회로를 통해 1,395개의 집회소에 중계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 1,260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120개, 필리핀과 한국에 11개,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에 4개) 또한 549개의 미국 스테이크 센터에 상설 인공 위성 텔레비전 수상 안테나를 통해 연차 대회 실황이 중계되었으며 솔트레이크 제곡에 있는 20개의 예배당에는 간편한 인공 위성 안테나를 통해 대회 실황을 시청했다. 대회 진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에 있는 56개의 상업 방송국과 2,000개 이상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으며, 캐나다에 있는 47개의 텔레비전 방송국 역시 대회 실황의 일부를 방송했으며, 미국에 있는 61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대회 실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했다. 비디오 테이프

또한 대회가 끝나는 즉시 영어 이외의 수많은 언어로 만들어졌다.

-편집자-

추가 사항 : 기도는 토요일 오전 모임에 로버트 엘 심슨 장로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했으며,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와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가 했으며, 신권 모임에서는 조셉 비워스틴 장로와 로널드 이 포울먼 장로가 했으며,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는 진 알쿱 장로와 휴 더블류 피트록 장로가 했으며,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와 조지 피리 장로가 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병환으로 참석치 못하였다.

이 모임의 사진은 공보 사진부에 있는 엘든 케이 린소우턴, 사진 부장, 에드웨이 클라크, 미카엘 맥몽기 형제가 제공했다. 표지 사진은 에드웨이 클라크 형제가 제공했다. *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은 자신의 웅대한 계획에 따라 천을 짜고 계십니다. ...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합창단이 부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라는 의미깊은 성가에 귀를 기울이셨기를 바랍니다. 그 성가는 멘델스존의 엘리야에서 따온 것으로 가사는 시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 : 4 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 위대한 세계적인 연차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훌륭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만 이 모임을 감리하시며 길 건너 호텔 아파트에 계시면서 유선 텔레비전을 통해 모든 절차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문처럼 병원에 계시지도 않으시며 여러 달 동안 병원에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듯이 혼수 상태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매

일 정장을 하고 계시지만, 쇠약하시어 육신에 피로를 느끼실 뿐입니다. 그분은 최근에 88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고령과 과거에 받았던 수술의 누적된 후유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분의 나팔 소리에 맞춰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로서 그분의 시현과 계시는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처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할 데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 드립니다. 나는 어제 그분과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그분께 향하고 있으며 그분을 지지하는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닿아 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도 또한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 역시 고령과 수십년 동안 주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활동해 오셨으며 현재는 노쇠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말씀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부탁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신 메시지는 그분의 아들인 조지 제이 롬니 감독이 대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네 분의 대관장단 중에 보좌로 봉사하셨던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님이 안 계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난 11월 27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그분은 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와 영감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십이사도 평의회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이 태버나클에 있는 연단에 올라서서

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사 29:14)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간증의 진실함과 설득력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계시지 않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그분의 계속적인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십이사도 평의회에 계신 형제님들께 그분들의 지극한 친절함과 힘과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20년 동안 능력 있고 헌신적인 분들로 구성된 특별하고 훌륭한 청원회의 일원으로 일해 왔으며 그들은 자기·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거룩한 사도직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내 형제로 사랑합니다. 각자는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잠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순로롭게 지도자가 변경됩니다.

나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에 계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역원들은 단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조직과 역원의 부름에 대한 신의 특성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총관리 역원은 모두 각기 다르며 각자는 그 자신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폭 넓은 여러 경험과 배경을 통해 그들이 맡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평의회에서 토론할 사항이 제기되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 흥미있는 과정이 수행됨을 관찰해 보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의 권세를 목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에도 결코 격렬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게 마음이 누그러치고 잘 조화되어서 의견이 일치되게 됩니다.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132:8) 이러한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나는 항상 신앙이 새로와짐을 맞습니다.

나는 또한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나의 진실한 감사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굳굳히 전디어 내어 축복받게 되시기를 간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47)을 생활에서 느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 어떤 문제로 씨름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한 느낌이 들고 주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나는 경전을 펴서 150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이 위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대해서는 너희 마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성 101:16)

하나님은 자신의 웅대한 계획에 따라 친을 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언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며, 그는 하나님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하나님은 그의 사업이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사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충실하고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하여 더 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가 거대한 힘과 권세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관장단의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은 시대에 맞는 시대에 앞선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가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대관장님과 자주 모임을 갖고 직접 지명을 받고 권능을 부

여받아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이 사도, 칠십인, 감독단, 및 보조 조직의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성장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강화된 신앙은 성찬식 참석수의 증가, 신전 참석수 그리고 십일조와 헌금 참여자 수의 증가로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경제적인 불황의 시기이지만 주님의 관대한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 년 전인 18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태버네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명에 기쁘게 순종하며, 그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시온을 건설하고 지상에 진리와 의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바치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적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반대하며 그들의 좁은 길에 놓여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분의 맹세와 성약은 확실합니다.”(설교집, 24 : 176) 이 말씀은 일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묘한 일을 이루고”(찬송가, 200장, 하나님 이루시는 일),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중에 출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로한 분들이 교회의 대관장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사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 당시 그는 젊고 힘이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그 시대의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다. 그의 마음은 새롭고 축복히 젖어 있는 진흙과 같아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모양을 빚으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

음이었습니다.

요셉의 계승자도 비교적 젊었을 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리의 기초가 제대로 기반이 닦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굳게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도자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결코 예언자가 우리의 곁을 떠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역을 행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관리 대제사이며 성스러운 신권의 모든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계시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젊은이는 행동하고 늙은이는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크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훌륭하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은 한 분의 부대관장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에 대한 충실성과 이 대업에 있어서의 성실성은 용광로에 잘 담금질되어 있으며, 그분의 신앙은 무르익었으며, 수 년에 걸쳐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의 예언자로 계신 그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언제가 되든지 변화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경우, 나는 주님이 그의 왕국에서 계승을 위해 세우신 절차에 따라 지명받게 되는 사람을 망서리지 않고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주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듯이 이 일을 지

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 놀라운 과정을 지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내가 십이사도 보좌로서 처음 총관리 역원에 지지를 받은 때가 바로 25년 전 4월 연차 대회였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나에게 참으로 위대하고 감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나는 전세계의 많은 나라와 여러 곳을 다녔으며 그곳에서 내 눈으로 직접 전쟁과 평화를, 부유함과 비참한 가난을, 자유와 억압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나는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다양한 환경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선함과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작용하는 심오하고 놀라운 일을 지켜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회원이 증가하게 되는 요소를 주목하여 왔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총관리 역원이 되었을 때는 교회에 251개의 스테이크밖에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1,402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362개의 와드와 독립된 지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13,6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8년 연차 대회 통계에 따르면 1957년 12월 31일 현재 회원수가 1,488,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982년 12월 31일 현재 숫자를 비교해 보면 5,15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영어에 “우리는 반드시 열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수확을 가져다 준 힘을 지휘하고 이끈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이 놀라운 일에는 연속적이며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과 권능은 성령의 권세로써 그것이 참됨을 그들 스스로가 알기 원하는 진지한 모든 구도자들과 모든 회원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부인하거나 천하게 행동하거나 의심을 하며 그들의 인생을 모두 허비해 버릴지 모르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소리를 통해 이 일이 신성한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시된 원리를 굳게 잡는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온유와 절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타종파의 조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꾸준히 자기 길을 가야 할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06 페이지)

나는 “꾸준히 자기 길을 가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꾸준히 자기 길을 갈던 사람들로 인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한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목적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강하게 충고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사명과 회원들의 복리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결정은 역원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을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더 큰 의무를 위해 절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위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첫 부활절 아침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

아 계시며 우리의 부활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며 매사에 주님의 제명에 순종하며 생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셋째는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구원 사업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에는 모든 세대의 인류 즉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종 또는 국가 또는 세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망라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업입니다. 그 노력의 결실은 끝없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굳건하고 확고한 길을 따라야 하며 결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에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육을 통해 세상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로서 주님을 선포하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장차 중요한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게 해주리라는 것을 주저없이 약속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기를 선택한 직업에는 관계없이 그들은 표현의 능력에 있어서나 근면의 습관에 있어서나 훈련에 관한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나 그들의 생의 고결성에 있어서나 그들 자신의 능력 이상의 보다 높은 힘과 권세의 근원을 인식하는 데 그들은 더 나은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지침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데 확고한 길을 따를 때 더욱 부지런해지고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되는 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가르침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 : 35-40)

이것은 우리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이웃, 가족, 우리가 사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두 가지 표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아서 그 불빛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마 5 : 14 참조)

사랑과 헌납의 정신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통해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다른 일보다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업에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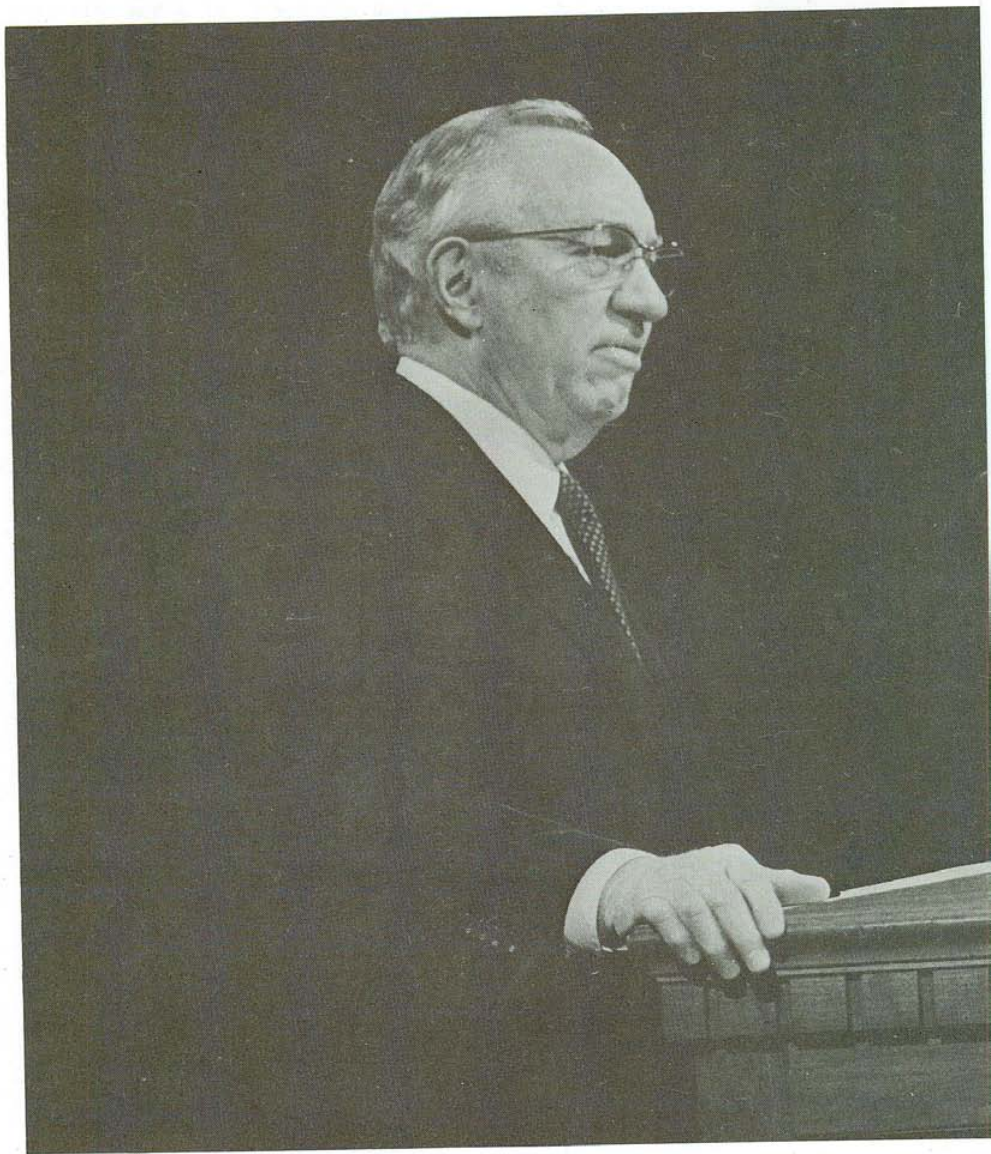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 가지 위대한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데 확고한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축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업을 성취하도록 그분이 세우실 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

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
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라.”(사 14:24)

오늘 아침 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
은 줄지 않으심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밝고 현실적인 희망에 찬 복음의 권리자요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간절하게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 제 여러 해에 걸쳐, 문학과 영화와 음악 등의 각 분야에서 우리는 전혀 희망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실존적 절망이라 불리는 심오한 감각의 표현이 점차 증가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이 연출해 내는 장면에는 또한, 이러한 감정에 조금도 휘말리지 않고 생활 전선에 즐겁게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잇달은 대학살과 전쟁은 20세기의 인간들에게 어슬픈 희망의 종소리마저 삼켜 버렸습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생이 그 의미를 잃었다고 인간이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그러한 견해는……이미 철학적 문학적 전위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 및 경제 제층에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생의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렌즈 듀보, 인간이라는 동물, 뉴욕, 스크라이브너, 1968년, 14페이지)

우리는 자포 자기한 개인들이 어떠한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억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정을 느끼며 참된 간청으로 그들에게 접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공동묘지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등장 인물이 통렬하게 한탄하면서, 이 혼동과 무의미성을 잘 전달했습니다.

“산산히 소란스럽게 부숴지고, 빈민하고 삭막한 모든 인간의 생은 결국 절규와 허약함과 고통과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누가 그걸 안단 말인가?……나도 모르는 일이야…… 왜 인간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물이 존재해 있으나 모든 인간은 옹기 못한 것을 갖는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야. 그것은 전혀 캄캄한 일이다.” (“훌륭한 군인”, 포드 매독스 포드의 소설을 극화함)

그러나 이러한 날카로운 견해가 바로 견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인간사에서는 그릇되고 논외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진리의 부당한 전조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절망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확신을 조용히 파멸시켜 버리지 않도록 막아 줍니다.

그 밖에도 고대의 예언자들이 옹기 진단한 바와 같이,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 (모로 10: 22)했으니, 슬픔과 불길은 상호 보완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옆에 그러한 비탄을 몇 가지 놓아 봅시다. 절망의 표현에는 거룩한 소망의 선언이 따릅니다. 소멸의 두려움에는 부활의 확신이 병행합니다. 편협성의 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기에 여념없는 나무 집의 아이들이 스스로 용감하고 세상에 저 혼자라고 가정하듯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인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탄식: 인간은 “의지할 곳 없는 우주”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을 누구나 돌보아 주지



대회 광경

않는” “주인없는 우주에 살고 있어,” “기회의 나라”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힘의 대열에 짓밟히는” 희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버트란드 러셀, “자유인의 예배” 신비주의와 논리와 기타 수상집, 런던: 조지 앨런 및 언윈사 1950년 57페이지)

제시: 여호와와는—땅도 조성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 45:18)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시 95:7)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
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
광이니라.”(모세서 1:39)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
라.”(니이 2:25)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
나니”(마 10:29-30 참조)

우리의 머리털만이 아니라 우주도 또한 헤아
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그
주변의 이야기만을 네게 들려주노라. 보라,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없어진 세계가 많이 있
고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도 많도다. 이들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로되, 내
게는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이들을 알고 있
음이니라 하시니라.”(모세서 1:35)

두려움: 인류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덤
너머에는 아무런 인간의 생이 없고, 아무런
신이 없습니다. “운명도 노여움도 자비심도
모른다.”(제임스 톰슨, 무서운 밤의 도시와
다른 시, 런던: 버트랩 도벨, 1899, 29-30,
35-36페이지)

부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
니라.”(마 27:52-53 니사 26:9-11 참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
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

:55)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
나.”(니이 9:13)

베드로가 말했듯이, 부러 잊으려 하는 사
람(벵후 3:5 참조) 또는 니파이의 말과 같이
위대한 지식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사람(니
이 32:7 참조)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러한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철학은 “음란한
것을 즐겨 하”(엘 30:53)는 것입니다. 왜 그
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위의 관용은 회망
이 없다는 느낌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
다. 만일 인간의 욕망이 확실히 실재하는 것
으로 또한 다만 순간적인 것만이 문제가 되는
“현재”의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진다면, 왜
인간은 어떤 충동을 억제하거나 만족감을 뒤
로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불멸성과
책임성은 한데 뒤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행위는 올바르게 하
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그릇된 결론에 이르러
소망을 갖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그러한 점잖은 사람들의 내부에서는
다만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빛
이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교성 84:46 참
조) 만일 그렇게 못하다면, 우리는 간디를 멸
시하고, 히틀러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등, 다
만 그 반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판론이 퍼져 나간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와 같
이 박해받게 되리라는 것을 반드시 뜻하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현대의 “가이사”
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에게 바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마 22:21 참
조)

이러한 실망감은 밖으로 드러나 물질주의
의 공허함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이 감소된다면 물질이 아무리 증가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
가지로 목적이 결여된 지식과, 지혜가 결여
된 정보 내용의 단순한 축적은 배움에는 이
르게 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함

니다. (딤후 3:7 참조)

번민으로 가득 차 괴로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진리를 추구하여 이 지상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모스 8:11-12; 교성 123:12 참조) 그러한 유명한 방랑자의 한 사람이 어느 동료에 의하여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여가지를 방황하며—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그는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신앙 속에서 마음도 편치 못하다.” (나다니엘 호손, 1856년 11월 20일, 영국인의 노트에서 랜덜 슈트어트, 뉴욕, 엠엘에이 432-33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 속해 있는 장면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전과 인류의 도덕적 기억을 거부하고, 절대자의 부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섭니다. 또 복음의 빛을 부인하고,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스스로 멀어져 나가 우주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만인의 비참하게 됨을 공공연히 소망하는 자의 길을 좇다가 (니이 2:27 참조) 불만족을 한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은 인생을 손쉬운 경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왕관에 앞서 십자가가 오며 내일은 월요일 아침이다!”(씨 에스 루이스, 영광의 비중, 뉴욕, 맥밀란, 1980년)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불안정 속에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인간이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곧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길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망이란 인간의 성품과 개체성의 영원히 전멸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브리감 영 대 관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간의 예지와 개체성이 보존되며 부활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설교집, 5:53)라고 지혜롭게 선언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번역을 하는 도중

에, 우리는
관리자요
있었던 것
해 보았
는 것
들의
사라'
에
으로.

한 우리의 중

업에 온전히 임하지

참으로 우리는 “멋있는 나-
념친” 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이
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을 통해 보전해 역사는
목적없는 세계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지상의 무대에서 등장 인물이 거듭
변화함으로써 인간의 파도가 계속 이어져 음
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 드라마에 나오는 실망을 느
낀 연기자들 중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한 장면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보고 복음
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극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러한 분들은 이 드라마의 저자의 목적과 가르
침을 이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무대에 올라서면, 극은 끝나게
됩니다!

한편, 우리도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 돌
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
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다.”(교성 3:3)

사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태초로부터
주님께서 아신 바 되었으며, 구원의 계획이
보여졌을 때, 주께서 참작하신 것입니다.
(니일 9:6 참조) 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진리는 단호하시면
서도 애정이 많으신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이
우주에 결국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

의 학교는 아버지와
하신 바로 그러한 노
저들을 시험하여
명함시는 것이
니하는 자를
주님은
의지와
고 채
니

들께서 엄숙하게 선언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된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
 보자.”(아브라함서 3:25)

삼으로 개개인이 발전하려면 자유
 선택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
 합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음

f.

소망은 “저들로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
 며 늘 선행을 행하게”(이더서 12:4, 골 1:
 23 참조) 하는 “영혼의 닻”(히 6:19) 같은
 것이므로, 사도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복음
 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권고한 것
 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신적인 제자들이 바울이 말쑥
 한 대로 행하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
 로 나타내며”(빌 2:15) 요엘이 예견한 말일
 의 골짜기로 비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
 까움이다.”(요엘 3:14: 계 16:16, 숙
 14:2 참조)

빛을 발하는 개인들이 “날마다 제 십자가
 를 지”는 바로 그 방법 자체가 설교가 됩니
 다. (눅 9:23 참조) 그들은 조용한 절망이
 아니라 조용한 영감으로 생활을 이끌어 나가
 므로,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빌
 1:7)이라고 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더 크고 더 시끄러운 인간
 역사 속에서 더 작고 더 조용한 역사를 나타
 내며, 이 우주 안에서 상연되는 더욱 절망적
 인 드라마 속에서 더 기쁘고 더 확신에 찬 드
 라마를 나타냅니다.

첫째 장면: 어느 선교부장은 방금 사망한
 선교부장의 후계자가 되라는 짝막한 공고문
 으로 부름받습니다. 한 쪽에서는 충실한 아
 내가 남편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오는가
 하면, 이제 막 수술실에서 다른 자매는 고향
 에서 멀리 떨어져 남편에게 가라는 부름에 기
 켜어 응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님들은 엄한

시련을 신의있게, 아름답게, 불평하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실제
 로 비극만을 초래할 따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둘째 장면: 젊은 선교부장과 그의 부인과
 다섯 명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흠어져 있는 선교사와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유개 트럭을 타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수 시간을 달리는 동안 물을 끓여 차
 에 실어야 했습니다. 다른 문화권 출신의 입
 양 자녀들은 이제 하늘 나라와 같은 문화권을
 갖춘 가정에 속해 있으며, 그곳에서는 어머
 니가 자녀들의 유일한 학교 교사가 됩니다.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이 가족은 자기들의 일
 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얼마나 순
 진하며 특별한 분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현재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잠잠
 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성 101:
 16)는 이 확실한 말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에서 한 군인이 그의
 군대 친구들을 열심히 그의 유개 트럭에 끌어
 모아 들어 특별 청년반 대회에 가도록 주선했
 습니다. 이 훌륭한 군인은 한 친구를 그 시간
 에 찾을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조금씩 저금
 해 온 귀중한 돈을 꺼내어 남겨 놓아, 그 사
 람이 비행기 표를 사서 대회의 영적인 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으로 은덕을 베풀
 뿐 이 친구는 둘째 큰 계명을 따르고 “다른
 사람이야 알게 뭐냐.”는 식의 절망적인 이야
 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른 장면은 제주섬기를 하다가 마비가 된
 젊은 제자인 여성 체육인이 보여 주고 있습니
 다. 그녀는 떨어져서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중
 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높게 서 있
 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던가? 그녀의 손실은 크게 뚫린 구멍과
 같은 것으로, 그곳은 언젠가 관대하신 하나
 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말 3:10)

부어 주실 저장고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봅시다 : 과부와 홀아비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이 영원한 동반자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때를 굳은 믿음으로 참음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마와 바울과 같이 그들은 그들에게 할 당된 환경에 만족하기로 배웠습니다. (엘마서 29 : 3, 6, 빌립보서 4 : 11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잘못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상하거나 빈정대지 않고, 옳은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겠으나(요 1 : 22 참조) 이러한 충실한 사람들은 관대한 요셉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의 형들을 애급에서 너그럽게 대해 주었던 듯이,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 : 5) 다른 사람들은 원망해도 그러한 성도들은 용서해 줍니다.

스물 여섯 살의 나이로 죽어가는 젊은 어머니가 두 자녀를 다 키우지 못하게 됨에 빈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특히 한 자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었을 정도였던 그 젊은 어머니의 영적인 순종심에 우리는 누구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아기는 무사하였으나 아아, 아름다운 어머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티없는 신앙을 지닌 이 젊은 자매의 염려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편과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녀는(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모사이야서 3 : 19)는 존재로 그려 본 베냐민 왕의 심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도의 상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설교해 줍니다. 복음의 빛은 그들의 영혼에 “기쁨을 불에 넣어” 주어 어둠의 구름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엘마서 19 : 6)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써” 그들이 하도록 맡겨진 주님의 사업을 끝맺게 됩니다. (“새롭게 감시다” 찬송가 84장)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세상은 그들을 무찌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될지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을 내고 의심할지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끄럽게 신전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용히 신전으로 모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형제 자매들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빌 2 : 15) 나타나 비추고 절망을 쫓아 내는 캄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복음의 원리에 들어 있는 위대한 교훈을——사망은 감탄 부호가 아니라, 단순한 심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일요일에 행한 성약과 영적인 새로운
우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에서 반영시켜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수많은 행복한 추억을 지니

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것처럼 즐거웠던 여름과 겨울 저녁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과 오락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건물 이외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우리의 와드 집회소였습니다. 예배당에는 두 단계로 된 높은 단상이 있었습니다. 단상은 꽤 넓었으며 첫번째 단상의 한쪽에는 와드 서기의 책상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으며 중앙에는 성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는 호화스러운 붉은색 천으로 덮힌 설교대와 감동단이나 방문 역원들이 앉는 붉은 플러시 천으로 만든 시트가 깔린 아름답게 조각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배당 벽 뒷면에는 두점의 인상적인 유화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커틀랜드 신전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솔트레이크 신전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찬식 모임은 매우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은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니라.” (교성 20:75) 그 당시 아론 신권에 속해 있던 우리들은 그것이 특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정년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도록 큰 영예가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집사인 나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높다란 첫째 단상에 앉아 있는 두 제사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집회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시간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한 몸차림으로 앉아 있었었습니다.

특별한 의자에 좌정한 감독단은 제사들보다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있었었습니다. 제사들은 감독단과 같이 위엄있게 행동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집사와 교사로서 우리는 첫째 줄에 앉아 성찬을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떡을 담는 접시가 얼마나 윤이 났으며 물을 담은 유리컵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회상할 수 있습니다. 성찬상과 아마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깨끗했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별 성찬 찬송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이들도 경건하게 행동하고 가장 잘 알려진 성찬 찬송가는 가사까지도 알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음악을 지휘했던 엘라 재자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찬상과 피아노 중간에 서서 회중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찬송가를 펴고 노래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본 했습니다. 그녀는 아론 신권 소년이 찬송가를 갖고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영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변화를 경험해야 하며 성

찬 찬송을 부르는 데 요구되는 이러한 성스러운 분위기에 일치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사를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성스러운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잘 준비하고 있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초대 사도들은 찬미함으로써 구세주와 함께 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 26:30)

그때 우리는 성찬식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거룩한 이 안식일에
주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영을 보내소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 위하여
피흘리사 죽으신 주
잊지 않게 합소서

우리에게 관용 사랑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주 가깝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희생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당신 앞에 가게 하고
영광 비쳐주소서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찬송가 6장)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가사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멜로디에 결부된 하늘의 표현으로 결합될 때 하늘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찬 찬송을 마친 후 제사들은 조그마한 용단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떡과 물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성찬 축복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교리와 성약 21편을 펴 놓았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도 없었으며

제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자신이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이 성스러운 기도문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그리고 또 박뚝박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 습니다.

정원회 고문들은 신권회 모임에서 성찬 의식의 신성성 곧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며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희생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지 가르쳤으며 또 한 복장과 외양의 중요성과 이 조용한 시간에 모든 계명을 보다 잘 지키겠다고 우리의 마음 속에 결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제사들이 그와 같은 신성한 의식을 처음으로 집행하는 듯이 보이는 의식 집행을 주의깊게 지켜 보고 구세주의 삶과 피를 기억하도록 떡과 물에 관하여 지시된 대로 거룩하게 축복문을 암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사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영적으로 일치된다면, 그는 마음속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겸손한 간구를 듣고 계심을 그럭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 (교성 20 : 77)

나는 우리가 신전에서 가졌던 성찬식에서 하워드 더블류 헌트 장로의 성찬 축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세계의 아론 신권 청소년들이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찬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의 영혼에 깊은 영성을 느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명료하고 의미깊었으며 서

두르거나 빨리 읽지도 않았습시다. 그분은 모든 사도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 구했습니다. 성찬 의식에서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며 성찬식에 참석하는 자는 누구나 한 마디 한 마디를 분명히 듣고 자신이 맺은 성약과 자신의 합당성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 의식은 구세주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이사도와 함께 상에 앉아 있으면서 빵, 즉 떡 한 덩어리를 집어 경건히 감사드리고 그 떡을 축복하여 성결케 하시고는 각 사도에게 조금씩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후 그는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 잔을 축복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같이 이 의식은 단순하나 감명깊은 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이래 이 의식은 주님의 만찬 곧 성찬으로 알려졌다. 합당하게 기도 로써 성결케 된 떡과 물(포도주)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며, 이것은 그를 기억하여 경건히 먹고 마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596페이지)

이 거룩한 의식은 후에 구세주께서 서반구의 니파이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그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며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명하시니

“저들이 이를 먹고…… 제자들에게 명하시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라. (니삼 18 : 1, 3-4)

구세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교회에 속한 자 곧 나를 믿어 나의 이름으로 침

레 받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리니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한 다음 너희에게 준 것같이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며……”

“너희는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며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게 하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가 복되리니 너희가 나의 반석위에 세워짐이라.” (니삼 18:5-6, 11-12)

매주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하는 이러한 기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의 하나이며, 우리 모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찬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승명과 인간의 향상과 영적인 성품을 이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에는 우리 자신의 한 주일 동안의 행위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의식에서 판에 박힌 습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지워 버리기를 원하는 말이나 행위나 생각을 누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을 범했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우리가 피해를 입힌 자나 범법을 범한 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런 다음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겸손히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은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게시에 의해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회원이 되는 자는 주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며 경전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실과 신앙이 있어 회원되기에 합당함을 경건한 생활과 말로써 교회 회원이나 장로 앞에 나타내야 하느니라.”(교성 20:69)

구세주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니파이삼서 18:28)

수년 전에 마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성찬 의식에는 인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영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영의 상처가 치료받고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진심으로 영적인 음식을 갈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합당한 사람에게는 화평과 행복이 주어진다.”(의의 십자군,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 133페이지)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주님의 회생으로 주어지는 귀중한 은사에 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성찬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취할 수 있도록 축복되고 성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성 20:27참조)

대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이상씩 성찬식에 참석하여 구세주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깊은 감사와 경건으로 순결과 친절과 사랑에 가득 찬 그분의 생애를 회상하고 위대한 대속의 회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의 찢긴 살을 상징하는 떡과 십자가 상에서 흘린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마시는 기회를 갖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니삼 27:13-14)

우리가 성찬을 취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 회

생하신 그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르게 고결하고 정직하게 생활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누가복음 10 : 27)

이것은 성찬을 취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선의 생활 곧 사회에 대한 선과 진정으로 인류를 돕는 마음을 갖게 하며 자신의 삶에서 증오와 반복과 부도덕과 이기심과 술주정과 질투와 부정적을 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기쁨을 맛보며 개인적인 생활의 성과 행위에 있어서 성찬의 거룩한 말씀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영원한 진보의 축복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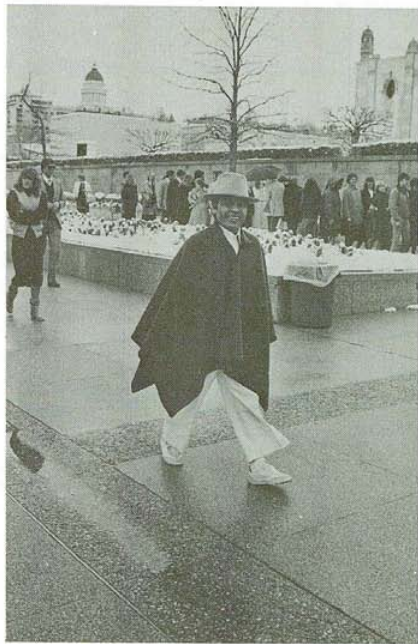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읽고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참된 관계와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은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의식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5분 동안만 주시하면, 그것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읽어서 얻게 되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얻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9페이지)

성찬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키워 주는 의식입니다.

성찬 의식에서 성약과 의무를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개인적인 보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취함으로써 갖게 되는 거룩한 덕성은 마음속에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삶을 지니는 것이며,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다는 나의 결손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단합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1보좌

(롬니 부대관장의 아들 조지 제이 롬니 대독)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면서도 예언자의 권고에 따르기를 거절하고 그를 비판하는 자들을 변호조차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되는 주제의 하나는 단합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회원들 가운데 평등과 단합의 정신이 널리 퍼져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의 저녁에 구세주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과 하나인 것과 같이 사도들도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언제나 목표는 단합과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 가운데의 평등이었습니다. 하나의 보기로 나는 예녹의 기록 즉 나머지 세상이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그분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단합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백성에게

저주가 두루 내렸더라.

“그 때로부터 저희들 가운데 전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졌으니 주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니 저희들이 의롭게 살아가더라.

“주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주의 영광이 심히 크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있었고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왜 그렇게 칭하였을까요? “이는 저희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모세서 7:15-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동안에도 그의 제자에게 동일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사도행전 4:31-32)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후에 그들은 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희들은 저희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희들이 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니사 2-3)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단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

회원들 가운데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되며 교회에서 완전한 우정을 갖는 것이지 교회 지도자와 그들이 주는 권고와 지시와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라

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인도는 기록된 말씀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계시로도 주어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서는 그가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교회에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면서도 예언자의 권고를 거절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변호조차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심은 배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시대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대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실 때 이러한 주제로 가르쳤던 위대한 교훈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바와 같은 다름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도 이제까지 있었던 바와 같은 논쟁이 없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니삼 11 : 28-29)

우리가 단합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며 그것을 주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니삼 13 : 33 참조) 단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따름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아래의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며 제 마음대로 생활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합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영감받지 않은 자를 따름으로써 단합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합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런 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지킬 때까지는 지상에는 단합과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권세는 교회 회원인 우리들이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환란의 주된 요인은 인간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행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의 책 서문이라고 밝히신 교리와 성약 1편에서 그분이 이것을 지적하시고, 이것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닥쳐 올 재난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교성 1 : 15-16)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의 혼계와 육체의 힘에 의존하지 마시고 (교성 1 : 19 참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를 찾으십시오. (교성 1 : 16 참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복음의 원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재의 세상의 상태와 경향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단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포함하여 모든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합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표준 경전이나 살아 계신 예언자의 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며 우리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려는 진실한 소망을 키우며, 간구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 신앙을 갖고 주님께 구하며(교성 18 : 18 참조) 주님의 계명 지키기에 힘쓰면 틀림없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며 우리는 견고한 단합으로 세상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확실히 이러한 단합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가 전엔 결코 향유하지 못했던 복음의 영광 얻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것은 해의 왕국의 율법에 요구되는 단합을 우리 가운데 발전시키므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정을 끊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단합된 백성만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내리며 바람이 불어 우리의 집에 부딪칠 때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마 7 : 25 참조)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단합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대로 따르던 훌륭한 소식인 복음의 참됨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일련의 행동 방향과 몇 가지 증거”

내가 오늘 이 대회에서 이 대회의 진행과 정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도 아마 전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부가적인 증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메시지의 진실성 때문에 더욱 감명받을 것이며, 그것을 신앙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 온 모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 그 자체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흥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나사렛 예수, 약 2천 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곧 나



총관리 취임 명예 회원인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왼쪽),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인 바바라 비스미스 자매, 제1보좌인 메리온 지 보이어 자매

사렛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완벽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며, 갯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삼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마지막 부분은 그분이 미래의 어느 때엔가 돌아오셔서 그 자신 안에 모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으나 삼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1-4)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극치가 되는 사건을 향하게 됩니다. 나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의 매장을 서둘렀다고 묘사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마리아와 다른 충실한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간단한 대화를 두 번 나누었는데 첫번째는 무덤 속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과의 대화였고, 두번째는 그녀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그가 사실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사건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후에도 생이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생활이 최후의 부활절 아침의 사건과는 매우 다르고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믿고 확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열심히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진리를 구하려는 자들이 알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몇 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대로 따를 때 이러한 것의 참됨에 대해 알 수 있는 행동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목자와 양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자기 양을 알고 있고 또 그의 우리에 있는 양떼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4-16)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우리에 들어 있지 않으면서, 그의 나머지 양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빛으로 들어온 이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조상들이 그보다 약 6세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간 미대륙에 살고 있는 요셉 지파의 잔류민을 일컫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그들의 말씀대로 그들을 방문하셔서 미대륙에 있는 이 다른 양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 저들이 내에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저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여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인 줄 알았으니, 이방인들이 저들의 가르침을 입어 개심할 것을 알지 못하였음이라.”(니삼 15 : 21-22)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서반구의 백성들, 즉 그가 언급한 다른 양들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록을 편집하여 미대륙의 백성들의 기록으로 요약한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물몬경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며 신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양들에게 주신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백성들의 천 년 이상 걸친 여행과 투쟁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친 예언자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수많은 간증의 힘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이란 신세계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한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확고한 간증을 더해 줍니다.

물몬경을 잘 알지 못하나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몬경은 그들

의 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살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진실됨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구세주가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물몬경의 위대한 예언자인 모로나이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물몬경의 참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절차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실재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혀 나타내어 보일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 : 4-5)

여러분이 진심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또한 주께서 주신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모로나이의 이 권고의 말씀이 복음 진리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나는 구세주의 부활의 실재를 간증해야겠다는 나의 사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늘에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육으로 난 독생자인, 영의 자녀의 말아들을 보내시어, 지상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시고, 그 뒤에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 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6-19)

다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 : 25-26)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있고 난 뒤에는 생이 있게 될 것이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기독교계의 모든 생각이 잠시 동안이나마 예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감사를 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의로운 원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구세주께서 곧 돌아오시게 됨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히 10 : 37)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1982년도 통계 보고

프란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1982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2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392
지방부 수	336
선교부 수	180
와드 수	8,888
스테이크 산하 지부 수	2,699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029

(위 통계 수치는 1982년에 71개 스테이크와 523개 와드 및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수	89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자치령, 식민지, 또는 영지	16

교회 회원

1982년 말 현재의 교회 회원 총수 ... 5,165,000

1982년의 교회 성장

기록상의 어린이 증가 수	124,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67,000
침례받은 개종자 수	207,000

사회적 통계

회원 1,000명당 출산 수	28.1
회원 1,000명당 결혼한 사람 수	12.2
회원 1,000명당 사망자 수	3.9

신권

집사	227,000
교사	168,000
제사	325,000
장로	436,000
철십인	32,000
대제사	180,000

선교사

복음 선교사	26,300
--------	--------

계보

신진 엔다우먼트를 위해 1982년에 확인된 성명	2,462,700
----------------------------	-----------

신전

1982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	
산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48,800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4,418,00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전	19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신전	22
금년에 문이 닫힌 신전	1

교회 교육 기구

1981-82 학년도의 총 등록자 수 :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320,500
교회 학교와 단과 대학 및 종합대학	70,100

복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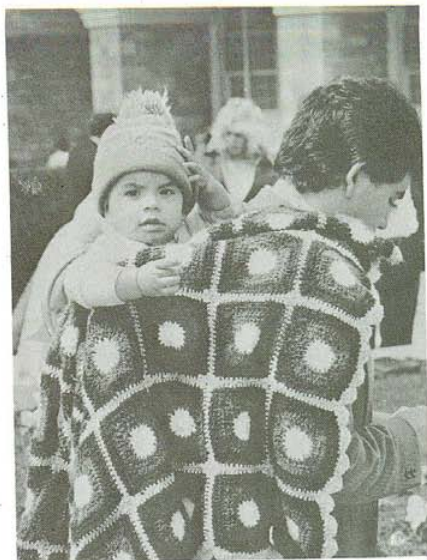
말일 성도 봉사회의 도움을 받은 수	83,700
유급 직장을 알선받은 인원 수	22,300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 수	393,500

창고에서 분배된 생필품, 중량(단위 : 파운드)21,099,000

클라크 박사, 최초의 인공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엔 엘든 테너 부대장관, 대관장단 제1 보좌;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존 지 래허던, 이태리 카타니아 선교부장;
 찰스 알 헨슨,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장;
 테리 래블 크레이포, 지역 대표; 레이버리
 아놀드 릭스, 지역 대표; 제임스 데이비드 킹,
 파라다이스 밸리 아리조나 스테이크 부장;
 제이스펜서 콘월, 태버내클 합창단 전 지휘자;
 버사 리더 리차즈, 1948년에서 1961년까지 청
 년 상황회 전 본부 회장, 퍼시 케이 페쳐, 축복
 사 및 전 신전장, 스테이크 부장 및 선교부장;
 몬테 엘 빈, 유명한 교회 지도자 및 박애주의
 자; 앨버트 레이 올핀 박사, 유타 대학 전 총
 장; 클레어 미들미스, 35년간 데이비드 오 맥
 케이 대관장의 개인 비서; 더블류 크리스드 헤이
 몬드, 유명한 채육인이며 교회 지도자; 바니



대회 방문자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82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재정 연례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준 지출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 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사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대한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재정 기록과와 기타 조직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 조직(회계는 교회 재정 기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 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정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 기록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

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직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재정 기록과와 감사과의 법률 대표의 책임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82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 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감사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



왕국의 열쇠



브르스 알 맥킴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는……사도로 성임되고 십이사도 평의회 의 일원으로 성별된 각 사람에게 계시의 영으로 주어지며, 지상에서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 의해서만 완전하게 행사됩니다.”

나 는 왕국의 열쇠가 어디서 왔으며, 현재는 어디에 있으며, 장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포함하여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는 1829년 봄에 시작됩니다. 잊을 수 없는 달 5월의 15일입니다. 주님의 예언자는 이제 지상 생활을 스물 네 해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전을 그의 서기에게 구술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으로 그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든 하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으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자와 그의 서기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달라고 외치듯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신의 섭리로 그들은 펜실바니아의 하모니 근처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둑의 한적한 곳으로 인도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흠없는 독생자에게 초차 모든 인간에 대한 모범으로 침례받기를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영

혼을 다 바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한 천사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육신을 입은 그와 같은 종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요한으로, 1800여 년 전에 마케로의 더러운 토굴 속에서 안티마가 목을 베어 살해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성스런 엘리사벳의 외아들로, 그가 난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한 천사로부터 유대 왕국을 전복시키도록 예정된 바로 그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침례로 죄사유함의 권능을 얻고자 뱃사바라로 물려온 바로 그 요한입니다. 후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들 바로 그 분을 애수의 팔레스타인 강의 불운한 강물에 침수시켰던 바로 사랑받은 제자인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신이 비둘기 같이 조용한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 거룩하신 분에게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는 거룩하신 음성을 들은 것도 바로 그 요한입니다.

이제 그는 부활된 영화로운 존재로써,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치루었던 그 메시야의 이름으로 그의 육신의 친구들에게 아론 신권과 천사의 영역 및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성 13편 참조)

이제, 거의 1700년만에 처음으로, 이 지상에서 인간의 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는 육신의 인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그들이 견혀 하늘의 빛이 다시 우리의 어두운 천체를 비추게 될 때가 눈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 사자들이 빛과 영광의 영역에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권과 지상 왕국의 대관장에 항상 예속되어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셉 스

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왔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지상에 제실 때 막역한 친구들이었으며, 주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 함께 먹고 마신 거룩한 사람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돌아가신 주님의 산 증인인 이들 고대의 사도들은 그때 기이한 일을 행했습니다.

영원히 제사로 남아 있는 그들은 현대의 예언자와 그의 동료에게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따를 신권을 주었습니다. 이 벨기세택 신권은 이제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고 거룩한 반차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사도의 직분의 권세와 권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들은 힘써 노력하여 신의 명령으로 이 지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조직하고 거의 무한한 것을 가져다 주는 어떤 열쇠를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왕국의 열쇠를 받아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모든 것을 모으시기로 계획하신 회복과 새로이 하는 영화로운 시대인 때가 천경륜의 시대의 열쇠도 또한 받습니다. 이는 태초로부터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계시와 은사와 기적의 시대입니다. (교성 27:12-13, 81:2 참조)

이와 같이 위임받고 구원의 복음을 갖게 된 육신의 인간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고 온 세상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국은 그후 1830년 4월 6일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모든 충실한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도 다른 열쇠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1836년 4월

의 어느 경이로운 날에 모세와 엘리야와 일라이어스가 각각 나타나 그들의 경륜의 시대로부터 육신의 몸으로 행사했던 열쇠와 권능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1800여년 전의 놀라운 날에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 17:1-13 참조)

그런 다음, 눈덮인 산 꼭대기에서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후, 죽음을 앓은 채 하늘로 올리워진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의 몸으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전으로와 그날과 그때를 위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열쇠와 권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그것은 고대에서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에 다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심일조와 희생으로 지어진 신전에서, 고대의 바로 그 예언자들은 부활된 영광스런 몸으로 성역을 베풀며 그들의 열쇠와 권능을 회복했습니다.

벨기세택 신권의 권세로 예속된 이스라엘인들을 애급의 속박에서 그들의 약속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끌어 낸 모세가 바로 그 열쇠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인간에게 세상의 애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 들여 그들을 약속된 시온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들의 눈에서 걷히지 않던 암흑의 비늘을 벗겨 주는 권능을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열쇠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권능을 주어 열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적인 말씀에 확인되어 있는 대로 지상의 만방으로부터 하나씩 들쳐서 여호와와의 산으로 인도하게 하며 거기서 하늘 높은 곳에서 주어지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충실한 자는 영원히 증식하는 약속을 받게 된다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성약으로 그 약속은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라이어스는 고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을 줍니다. 그것은 현대의 인간과 그들의 후손의 모든 세대가 축복받게 될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내어 줍니다.

엘리야는 인봉하는 권능의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 권능으로, 고대의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그들의 행위를 하늘에서 영원히 인봉시킬 수 있습니다. (교성 110:11-16 참조)

엘리야가 오십으로 인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침례는 영원히 유효하며, 효력이 있으며,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는 지상의 왕국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해의 영광의 영역을 의미하는 하늘의 왕국에서 회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교성 128:18)

절정의 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십이사도를 성임하셨습니다. 그는 거룩한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와 같은 열쇠를 십이사도 정원에게 주셨습니다. (마 18:18 참조)

우리 경륜의 시대에 벨기세택 신권은 1829년에 임했습니다. 1835년 2월에는 거룩한 사도직에 성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쇠가 여러 번에 걸쳐 주어졌는데 주로 1836년 4월 6일에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어 과거의 모든 강물이 현재의 대양으로 흘러 들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나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열쇠와 권능으로 육신의 인간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절정은 왕국의 모든 열쇠가 1844년 겨울에 십이사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충만한 신권이라 계시된 것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충만한

것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은사와 권능을 받고 나자 예언자는 십이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왕국의 모든 열쇠를 인봉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신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리를 인봉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왕국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도들이신 형제 여러분, 이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깨에 왕국을 걸머지고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러프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72페이지)

그것은 주께서 십이사도에게 앞서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에서 성취됩니다. “너희 십이사도회와 너희의 조언자와 인도자로 임명된 대관장단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 신권의 권능을 부여받았느니라.

“너희가 지닌 그 권능은 세상의 시작부터 어느 시대에든지 경륜의 시대를 위임받은 모든 자에게 관련이 있으니,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받은 경륜의 시대의 열쇠는 너희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요, 참으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온 것이니라.”(교성 112:30-32)

이와 같이 하여 대관장단의 계승을 위한 주님의 체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 곧,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대관장단의 권리와 권능인, 하늘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이러한 열쇠는 사도로 성임되고 십이사도 평의회로 일원으로 성별된 각 사람에게 계시의 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쇠는 대관장단의 권능이므로 이것은 지상에서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 의해서만 완전하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선임 사도요, 관리 사도요, 관리 대제사요, 관리 장로입니다.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아무도 그 가르침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모든 십이사도에게 열쇠가 주어졌지만 이 열쇠는 십이사도의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제한된 정도로만 사용되는데 그것은 그들 중 한 분이 지상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임이 될 때까지에 한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악한 살해자들에 의해서 순교자로 마지막 숨을 거두자 지상의 왕국의 차기 선임 역원인 브리감 영은 자동적으로 관리 역원이 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브리감 형제의 숨결은 주께서 미리 기름 부음을 준 종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우는 권능의 숨결이 됩니다. 교회에 관리 역원이 없는 때는 눈 깜박할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킴벌 대관장께서 돌아가셔서 아, 것처럼 웅장하고 훌륭하게 이루어진 성역을 보고하러 가시게 되면, 열쇠는 즉시 주께서 선택하신 다른 사도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신

성한 계승의 체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을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 일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된 열쇠는 주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는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진리가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과, 이 사업이 계속되어 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고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 지상을 가득 덮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나 자신과 이 왕국의 모든 충실한 장로들과 그들의 편에 담대히 서 있는 모든 거룩한 자매들을 위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뿌리와 가지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십일조는 승영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약속의 원리이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말 3:8) 이것은 경전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고 주님의 재림시에 그루터기와 같이 불살라 버리게 되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말 3:9; 4:1 참조)

이 질문은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하여진 것이나,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 대륙의 니파이인들과 레이먼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 주후 34년 경에 그들을 방문하시어 그 말씀을 되풀이 하셨기 때문입니다.(니삼 24:8-9 참조) 나는 현대의 이스라엘들도 똑같은 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재림에 앞서 있을 불을 경고했으며, 십일조가 중대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교성 64:23-24 참조)

반면에,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 그들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말 3:10 참조) 더 나아가,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말 3:11)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십일조의 중요한 계명을 포함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항상 알지 못합니다. 그 예로, 우리들 대부분에게 공통되는 다음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운전 기사가 길가의 모든 신호를 살펴보고, 비실거리며 굼벵이 같이 느린 차의 뒤를 따라 가는데, 그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푸른색 신호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안달스럽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속도를 내어 겨우 노란색 신호를 통과해 갈 정도가 되고 여러분은 신호에 걸려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인내심을 시험하는데 흔히 쓰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저만큼 달려가는 운전 기사에 대해 상스러운 언사까지 머리에 떠오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치 못해 하는 것이기는 해도 그 길에서 2마일 쯤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성을 내기 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러한 원리 깊이가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아름다운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아름다운 가을 날, 나는 차를 몰고 호두를 모으러 시골로 갔습니다. 우리 집과 내가 호두를 주으러 들어간 울창한 삼림까지 가는 길에는 열 여섯 군데의 일단 정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열 다섯 번은 꺾박 꺾박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일단 정지 표시는 시골 구석에 있었습니다. 나는 양쪽 방향

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서야 하는가? 일단 정지 표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뿐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내가 꼭 서야 하나?” 그래서 나는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한 속도를 지키며 따라갔습니다. 울창한 삼림 길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주위에서 커어브를 틀 구석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해서 버지니아 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도를 줄이고 차를 돌렸습니다. 내가 막 차를 돌렸을 때, 길에서 다른 차가 달려왔으며, 우리는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속 약 8킬로미터의 속도로 맞부딪쳤습니다. 그리 심한 충격은 아니었으며, 차도 심하게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168볼을 들여 그럴과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건은 완전히 시간에 맞추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마지막 일단 정지 표시에서 차를 세웠었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그 뜻을 알겠나이다. 주님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려 하지 않으셨음을 이제 나는 알겠나이다.” 사실, 나는 전면이 엉망이 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열 여섯 번을 꼬박 차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황충을 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축복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성 130 : 10-21 참조) 이것은 또한 일단 정지 표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교성 58 : 21)

말라기는 말을 계속합니다. “너희 밭에 또 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버리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말 3 : 11-12)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사실 우리는 더 잘 보게 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행복감은 그 얼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다소 한탄하시 듯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말 3 : 13-15)

여러분은 이웃집 비회원의 길 어귀에 있는 보우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십일조도 내지 않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을 걸. 그는 일요일이 되면 수퍼 볼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이나 보고 있겠지. 그는 내가 하는 일들 어느 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며,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지.”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임이 끝나면 또 모임이 있습니다.) “여호

와게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말 3:16 및 니삼 24:16)

아!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 분명히 그러합니다. 한 무리는 그 보상을 지금 받고 있고 다른 무리는 하늘에 그것을 쌓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록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에서 죽은 자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계 20:12 참조) 그런 다음 주님은 분명히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교성 82:10) 그 말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기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 하리라.”(말 3:18) 기록을 보고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십일조에 관한 전체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말 4:1)

다시 말하자면,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뿌리와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뿌리도 가지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알렉스 헤일리는 뿌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선조

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하여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십일조는 신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십일조를 제외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현세와 영원을 위해 신전에서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날에 뿌리도 가지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승영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십일조 없이는 승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참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일조는 승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십일조를 바치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황충을 금하여 그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되며, 그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훨씬 멀리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이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진대, 주님께 그의 십일조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함을 간증드립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왕을 통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모사이야서 2:2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생의 드라마에서의 용기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듯이
행동함으로써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
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을 깊이 꿰뚫어 보고
세계는 온통 무대올시다. 그리고 인간
은 죄다 배우에 불과합니다.” (뜻대로 하세

요, 제2막, 제7장, 139행)라는 글을 썼습니
다. 나는 허구가 아닌 실제로 있는 연극의 무
대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연극은 어떤 사
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지상에 계셨으며 현재 거룩
한 분으로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님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한 숲에서 요셉 스미
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님께서는 성서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의 뜻을 나타내셨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연극의 대부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을 쓴 작가는 귀를 기울
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눈 개개인에
게 미래의 장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계시했
습니다.

예를 들면, 2600여 년 전에, 연극에 등장하
는 한 중요한 인물은 “후일에 될 일”(단 2 :
28)의 몇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다
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보
았으며, 그 꿈을 통해 그는 말일의 장면에 대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단 2:44)

이에 관련된 장면은 이제 무대의 정면에 올려졌습니다.

열 네 살 반 된 요셉 스미스는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알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이서 1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세의 소년에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원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예언자 다니엘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물론경의 번역 원고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겼고 그것은 분실되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교성 3:1)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다.”(교성 3:3)

“보라, 너는 요셉이라. 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를 어겼으니 깨닫지 아니하면 타락하리라.”(교성 3:9)

요셉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배역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함을 칭찬해 주신 그후의 계시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일에 세워지게 될 이 왕국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쓰러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단 2:44)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범기독교회 운동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원리를 타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제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변경시킬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18개월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이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자의 방문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왕국은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2 참조)

연극의 다른 장면에 대한 역할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계시자 요한 그 외에도 성경 역사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니파이, 엘마, 힐라맨, 물론, 모로나이 및 물론경 역사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배역의 주인공은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생애에 있었던 많은 사건은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보여졌던 장면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장면, 인류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배역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만나니”(교성 4:3) 스크린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 인간은 회개하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면 환영받습니다. 예언자 니파이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만

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가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이 26 : 3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저자이며 심리 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리처드 엘 이반스, 리처드 이반스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 퍼블리셔스 프레스, 1971년, 161페이지)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 : 7)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인간은 자신이 온 종일 생각하는 대로 되는 법이다.”라는 말로 이 개념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우리가 연출해 내는 인물-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젊은 시절 스코트랜드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는 향수에 젖었고, 절망을 느끼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상인방들에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대의 말은 역을 잘 하라.”고 조각된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훌륭한 선교사의 역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경험이었으며, 그가 인생의 후기에 수많은 중요한 부름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글에 나와 있는 소중한 경험, 클레어 미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5년, 174페이지)

우리가 품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품위있는 사람이 하듯이 행동함으로써 품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원리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

우리는 그가 행하시듯이 행동함으로써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형태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선택을 합니다. 연출해 내고자 하는 역이 있으면, 그 역을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역을 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용기있는 지지자입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결여된 반신 반의하는 회원입니까? 여러분은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드라마에서의 용기는 보상이 따릅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설 14 : 7) 우리가 영생이란 이 생에서 사랑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용기를 토대로 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후손과 선조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합당하게 영생을 얻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선교사과에서는 귀환 선교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는 1년 내지 10년 전의 귀환 교사들이 포함되었으며 오차가 3퍼센트 이내로 정확하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실성이 가장 모범적이고 찬양할 만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보고서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주일 전에, 나는 짧은 가족들로 구성된 스테이크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선교 사업을 행하였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훌륭한 스테이크의 하나인 좀더 장년층의 회원들로 구성된 스테이크를 방문하여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권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귀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으나 선교 사업을 명예롭게 마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자기 수양을 키워 그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들들에게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모든 아들과 딸들이 신전 결혼을 하도록 가정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에 대한 선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출생시부터 자신의 선교사 저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연령에 이를 때 경제적, 도덕적,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교성 68:28)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선조들이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칭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전에서 구원의 의식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고인이 되신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증조부모님과 내가 계보 탐구로 알 수 있는 먼 윗대의 선조들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전의 구원 의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선조들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얻으며,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모세서 6:59)을 가져다 줄 의로운 생활의 왕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장막이 내리워지고 구세주께서는 용기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 25:21)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앞으로 임할 영원한 세상을 통하여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고 말씀했듯이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이생에서 충실했던 역할에 따라 심판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하트만 벡터 이세 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위로해 주며, 우리의 삶에 목적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훌륭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앞에서 있는 이 몇 분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몇 년 전 벨지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떠나기 바로 전에 우리 가족은 휴가를 얻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우리가 차에서 짐을 내리기도 전에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내가 수영장을 지나올 때 “자녀들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오.”라는 간판 표시가 이상하게도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에는 그와 비슷한 표시 판이 눈에 띄어도 무시해 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린 자녀들 곁에서 지켜 보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에서 짐을 다 내려 놓았으니까요.) 갑자기 딸 아이가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무엇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수영장에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쳐서 바로 딸을 구했습니다. 나는 그날 도움을 구하는 필사적인 그러나 말없

는 부름을 깨달았으며,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험과 같이 항상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소리지만 우리가 들으려 한다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용한 소리와 표시 판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평안을 주며, 나를 위로해 주며, 나의 삶에 목적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해주며,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몇 년 전 정신병 의사인 헨리 링크 박사는 수년간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가 되었으며 종교교의 귀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이에 관해 생각해 보다가 구세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하여진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기 시작하였고, 신앙으로 모든 선한 일을 지켜 행하였으며”(모로 7:25)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우리의 전체적이며 절대적인 신앙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 데려다 놓은 작은 강아지는 첫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그것은 어미 개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안아 주면 그 강아지는 안정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을 때 나는 필사

적으로 어디엔가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야구부의 일원이 되어 운동복을 입자 나는 그러한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남녀 노소 또한 모든 가정과 독신자들의 이러한 커다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거나 어디에 있거나 즉시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형제애가 있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 줍니다.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형제애와 자매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말일성도인 한 독일군 병사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을 때 그는 그의 상관에게 “최소합니다만 백기를 들고 적 편에 가서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물론 장로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서 이 얼마나 기묘한 요청입니까. 그러나 상관은 그의 상태를 보고, 마치 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백기를 들고 적 편으로 건너가서 물론 장로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타나, 그는 독일군 장교와 함께 적 편으로 건너와 그의 손을 말일성도인 그 형제의 머리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남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소속감으로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함이며, 다음은 영원한 조적이 될 수 있는 가족에 속함이며, 다음은 이 지상 어느 곳에서든지 회원으로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은퇴한 부부(크루저라는 사람)가 그들의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서부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 프로보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지를 생각해 두지 않았습다. 그래서 택시로 갈아 타고 프로보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좋아하고 좋은 느낌을 받게 되어 바로 다음날 그곳에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중서부에 있는 큰 도시에서 왔는데 한 집에서 42년 동안 살았지만 거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도 지역으로 이사한 그들은 큰 음식과 도움을 받고 우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사랑했으며 정감과 따스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그들의 생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큰 가정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것보다 더 크고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길로 개종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의 품성을 높이고 자신의 생을 바꾼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함께 느낀 사랑으로 인해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한 백성들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의 말을 들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19)

회원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 이태리, 오슬로, 멕시코시티, 포틀랜드, 오렘, 유타 등 — 결코 이방인과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교회는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혼자 살고 있는 회원일지라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속해 있으며, 기여하고 있으며,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홀랜드에서 선교부장이 심한 심장 마비를 일으켜 잠시 동안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미국 사람인 외국인이었지만 소위 하나님의 권속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홀랜드와 다른 지역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주님의 사도들은 그가 소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지상에서 매일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했습니까? 그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에 소속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걸려 온 수많은 전화와 병 문안을 받기에 그녀는 사실상 지쳐 버릴 정도였습니다.

선교부장의 병세가 좋아진 것을 보고 떠나는 심히 가슴이 벅차 울랐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큰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특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집에서와 같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것과 소중하게 지키는 표준, 우리에게 필요한 영, 그리고 도움, 안정감과 그곳에 소속해 있다는 것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장로 정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와드 구역 안으로 이사 오는 모든 회원들을 위해 무료로 이사짐을 옮겨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말일성도이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그들의 마음과 집과 생활을 활짝 터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사랑과 기쁨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진수이며, 구세주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 27)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양선이니……(갈 5 : 22)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서 하라고 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친절함과 진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사랑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비이기적이 될 때 소속감을 얻기를 남 몰래 조용히 원하며 또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형태로 돌보고 보살펴 주는 것은 결코 강제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의 영향력과 기쁨과 선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대회 방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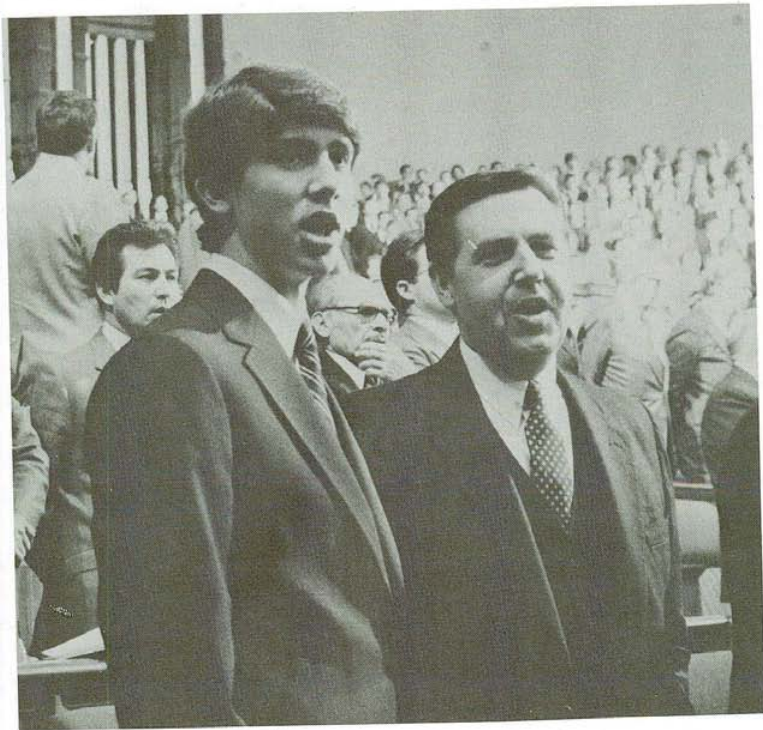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신권을 소유한 어떤 비활동 회원이 기도와 접견을 하는 시간에 와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도자의 진실된 염려와 사랑을 느끼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가 느꼈던 형제애와 성령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형제애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주님의 봉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할 때(교성 58:27) 우리의 동정심, 지혜, 성품, 감사하는 마음, 힘이 커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지도자 여러분, 예언자 모로나이의 권고에 따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저들의 영육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모로 6:4, 5)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권속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든 사랑과 정력을 다해 우선 우리의 가족을 돕고, 그 다음에는 교회 회원을 돕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큰 특권과 명예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언자를 영접함



로렌 시 던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 10:41) 모든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보고 싶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이 사업의 진실됨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은 그분들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셨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오늘 날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두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의 대관장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그랜트 대관장님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투엘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셨고, 나의 아버지는 그 당시 투엘 스테이크 부장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근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결식이 끝난 후에 나는 어린 소년으로서 나의 부친이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대관장에 대한 동일한 사랑

과 헌신으로 그랜트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받으신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어느 누구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 이외에 다른 예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이 좋은 친구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처럼 나는 거의 기만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경험과 다른 경험을 통하여 부친은 나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친이 그랜트 대관장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과 가장 위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누구든지 지지하고 받들고 기도하고 받아들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의 가족과 나는 호주 시드니 선교부를 관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과에서 나와 나의 선교사에 관한 견해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호주 시드니 선교부에서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런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킴블 대관장님이 우리를 만나 보러 오셨을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던 형제님, 우리 모두는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비록 우리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주님과 예언자 앞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노력을 배가 하였을 때 성장이 점점 빨라졌고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강화된 힘과 새로운 스테이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때문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예언자를 따르려는 우리의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함

니다.

나는 바로 지난 주말에 신권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밤 선교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가졌는데 그는 나에게 “형제님은 정말로 선교사 총관리 역원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을 선교사 총관리 역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나는 어떻게 해서든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는 나의 부친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부친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기꺼이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충성하고 따르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본분이라면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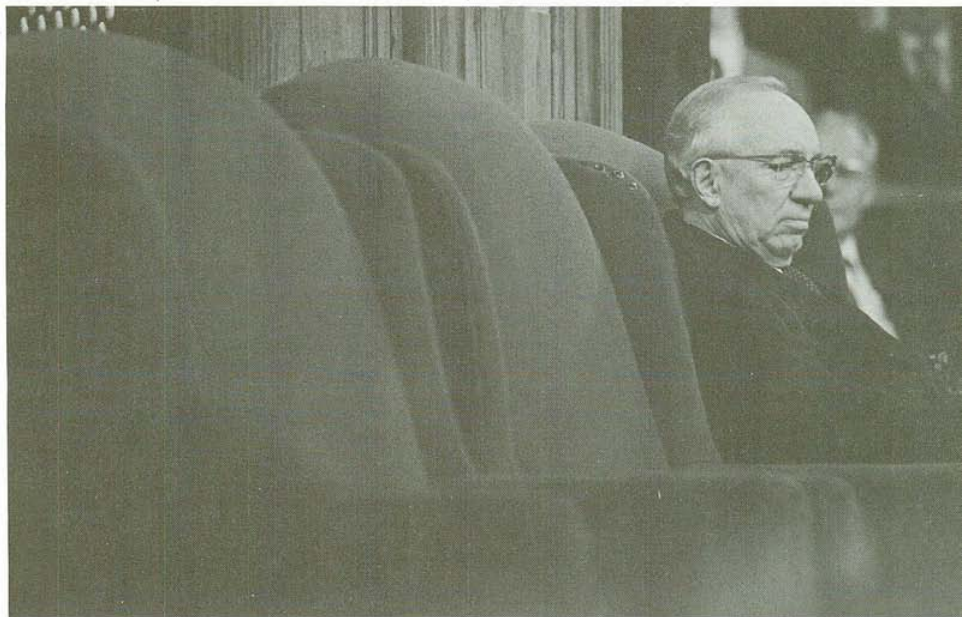
그것은 프로그램도 아니며 활동도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며 그분을 위

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성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 10:41) 나는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친의 생활에서 그의 충성심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으며 또한 모든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이러한 축복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시작했을 때 드린 간증으로 이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이시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에게 충성하며 예언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언자를 받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즉시 행하십시오



마빈 제이 애쉬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그 지식에 따라 곧 실천해야 합니다.”

몇 주일 전에 나는 어떤 낙십에 빠져 있는 선교사와 함께 멀리 떨어진 시골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삼사 주일쯤 된다고 생각되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께 즉시 편지를 쓰라고 넌지시 말했을 때 그는 “즉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즉시란 말은 힘이 있는 말이며 행동이 담긴 말입니다. 그것은 지체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 행동함을 뜻하고 곧바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컵보를 틀거나 돌아가지 않는—직선 코스나 직선 통로나 곧은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연은 즉시의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지연하는 것은 하여야 할 어떤 일을 고의로나 습관적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연이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오직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나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 4:18-22)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즉시란 단어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그를 좇으니라.” 인간 행위에 적절히 적용되면 얼마나 서술적이며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가치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를 섬기도록 부르며, 그의 길로 곧장 걸어 나가게 합니다. 구세주의 신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그 지식에 따라 곧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내일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고, 편리한 때가 아니라—“오늘” 즉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르라고 한 그분은 성령과 감화력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로를 정하시고 방향을 표시하고 문을 열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그에게 오도록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하게 지낼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써 그 진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즉시 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가 더 이상 친히 우리와 함께 지상을 걸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만 홀로 남겨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게 된다면 그의 지침과 계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행하기 전에 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의 선결 요건은 목표 설정입니다. 행동은 사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선택할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옛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란 말은 어떤 가치있는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의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교성 78 : 7)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큰 용기가 요구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행할 결심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결정으로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용기와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분이 낮고 소박한 어부 베드로는 첫걸음을 내딛고 곧 예수를 좇았습니다. 그에게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안나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행 4 : 6), 그 가운데 세워졌을 때 베드로는 대담하게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 : 13)

대제사장은 이 형제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는 다만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행 4 : 18-19) 위협에 직면하여 이 사도들은 용기를 얻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나니”(행 4 : 33)

즉시 첫걸음을 내디뎌으로써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그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힘과 권능과 확신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와서 나를 좇으라.”(눅 18 : 22)는 그의 부름을 수락할 때 얼마나 현명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용기와 우리가 선한 목자를 좇을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질 힘과 권능이 부여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구세주를 따를 계획을 할 때 사탄은 그 일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의심케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단념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각자는 서로 달라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직업적인 면에서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 : 19)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수에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드는 목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교사에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재능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라,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겐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교성 46:11-12)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일들은 서로 다름니다. 또는 도로의 장애물이 옮겨지거나 어떤 태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전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겁부터 겁어먹는 것은 자기를 배신하는 것이요. 해볼 것을 겁을 내 주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쳐 버리는 수가 가끔 있으니깐요.”(되는 되로, 제1막 4장)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찾아 낼 수 없는 능력을 바라면서 행동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 “지금은 아니오.” 또는 “아직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과 진지한 마음으로 그가 당신을 원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거나, 지금 어디에 있거나, 누구이거나, 어떤 재능을 가졌거나 안가졌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을 꼭 기꺼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스테이크 대회 모임에 따라나와 여러 해 동안 아주 비활동적이었던 한 사람이 몹시 주저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는 정말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은 엉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나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 물을 휘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물이 소용돌이만 만들어서 곧바로 전진하기 보다는 그 주위에서 맴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비평가가 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유를 문제의 무익에 두는 반면 주님의 좋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시 구세주를 따르는 것에 목표를 둔 사람은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도록 도와 줍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괴로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경청하여 듣기만 해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스테이크 부장이 그가 받아 보았던 가장 진지한 감사의 표현 중의 하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두 아이의 젊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한참 잠깐한 후에 그 자매는 그 자매가 한 감사의 말은 단순히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에 보다 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을 비평하고 발전하지 못함을 외적인 조건으로 돌리는 대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발전은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정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즉시 구세주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비평이나 또는 우리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의해 저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구세주는 “서로 화목하라.”(막 9:50)고 훈계하셨습니다. 평화는 우선 내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서 가정으로, 지역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눈앞의 심판이란 해로

운 유희적인 것에 반항할 때만 올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 (니삼 14 : 1, 마 7 : 1 참조)고 경고를 받았습니니다. 어쨌든 자칭 심판자가 되는 것은 유혹적이며 흥미를 돋구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맨발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뛰어들면서 그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 가난하고 늙은 불란서 부인이 세느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웅크린 어깨에는 아주 낡은 쇼올이 걸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굽혀서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그 무엇을 집어서 그의 쇼올 안에 넣었습니다. 한 순경이 그의 행동을 보고 급히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 거친 목소리로 "당신 쇼올 안에 숨겨 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파는 쇼올을 접은 자리에서 꺼진 유리 조각을 꺼내서 "이것은 단지 꺼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일 뿐이에요. 어떤 맨발의 소년이 이것을 밟아서 그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이것을 주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경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 순경은 이 여인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하기 전에 우선 그녀의 행위를 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 행동에 대해 그릇된 심판을 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의 부름에 즉시 조심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복음 원리를 생활화 함으로써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와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즉시 행동하는 데는 자기 훈련과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고 후에 지불한다는 생활 신조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의 문제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생활을 정리할 수 있기 전에 우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행동으로 옮기기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곤란한 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것 즉, 변화되어 지체없이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엘마서 34 : 33)

우리들 중 어떤이들은 우리가 일을 미루고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목적없이 헌신하지 않고 자제없이 살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릇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엘마서에 있는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 (엘마서 34 : 32)

미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루는 것이란 의심과 지체가 혼합된 불건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라, 믿으라와 같이 구세주가 자주 사용한 단어는 행동어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 : 13-14)

여러분은 능력을 의심치 말고 여러분의 함

당한 생각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의미있는 변화와 목적있는 삶에 참여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분의 실존과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알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요구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체하며 보다 좋은 것을 위해 변경하는 자들은 즉시 발전을 보여 주며 더 현명하고 더 강해 집니다. 우리는 즉시 첫걸음을 내딛을 용기를 질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첫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에 걷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목표대로 즉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비평적인 것을 피하면 힘에 힘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더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성장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즉시 전진하게 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그분의 동반을 통해 온정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일어서서 신앙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가장 큰 근원 중의 하나는 의로운 일을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의미있는 성장이란 내부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길을 걷고 지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팔을 들어 올리고 우리들의 동료에게 용기를 주고 처신하는 데 개인적인 독창력을 발전시키고 위엄있게 우리의 고난을 이겨 나가고 모든 사람이 즉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행복과 영생은 즉시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 주어 집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나의 증거와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



제프리 알 홀런드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계속 구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밤 내 어깨를 누르는 이러한 책임감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매 경마 대회에 참가했던 노새처럼, 아마도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 매트와 함께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된 최근의 연구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을 통계적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만일 애정이 깊든, 영감에 의한 교육과 모범을 가정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극히 제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교사, 신권 정원회 고문 또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을 위해 대신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큰 책임에 대해 기껏 이 정도의 권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매트와의 관계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어머니와 누이, 형제와 더불어 그가 나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친구보다 나의 아들과 함께 오늘 밤 신력 모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이 웃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1대 1로 농구 경기도 합니다. 그와 골프치는 것은 반대하지만 (사적인 농담임), 우리는 라켓볼과 테니스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해 토론합니다. 나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고, 그는 큰 고등학교의 반장입니다. 우리는 노트를 비교하고 제안을 하며 서로의 목표를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넣은 그의 고무 요 위에 누워 마지막 날의 벌로써 20세기의 변동이 어느 날 일어나 홀랜드 가족을 (abonation) 프로보의 길거리로 떠내려 가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또 다른 사적 농담임)를 밤이 깊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늘 매트의 학교 수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그의 선교 사업이 어떤 형태가 될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선교 사업이 나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의 어머니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전 결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그는 미래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신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밤 이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 중 어느 점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분투하는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모임에 참가하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이 모임에 그들의 부친이 오늘밤 혹은 어떤 밤에 그들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 남보다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지명반은 이 주제에 관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청소년과 어른, 우리 모두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고, 추구하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버지로서 불충분한 노력을 했던 단순하지만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초기에 나는 가족과 함께 뉴잉글랜드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패트는 우리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고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시간 강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적은 수입과 많은 문제들로 곤란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의 경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많은 문제로 지쳐 좌절하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특히 요구되는 것 같고 맥빠진 것 같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나는 새 아침이 밝아 올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의 작은 학생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보통 때와는 다른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매트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네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매트,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니?”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면서 방 구석에서 장난감을 갖고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매트,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나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는 것은 그만 두었지만, 잠시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다섯 살 짜리 되는 매트는 큰 갈색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고통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밤 엄마한테 잘못된 것이 없는데 꾸짖을 하셔서 엄마에게 말대꾸를 했어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온 몸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은 주의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섯 살 짜리의 성장은 계속되었으며, 사랑의 화해는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바보스런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매트한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던 괴로운 생각들을 밖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수양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내어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한테 매우 실망하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주 웅장한 부모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앞에서 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즉, 나는 그에게 곧장 가서 자라라고 하였고 방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잠자기 전에 동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울먹이면서 얌전히 그의 침대로 갔고 그곳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달려주고 닭아 주어야 할 눈물로 그의 베개를 적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도촬했을 때의 침묵이 침울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것을 느꼈

을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니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
았을 때, 나의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나
의 힘없는 기도는 큰 소리로 울리면서 내 귓
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때 일어나 매트
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금방 진정시킬 수 없었지만 결
국 잠이 들었고 거의 꾸지 않던 꿈을 꾸기 시
작했습니다. 나는 이사 가기 위해 매트와 합
계 두 대의 차에 짐을 싣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짐을 다 싣었을
때, 나는 그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
다. “좋아, 매트.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할테
니, 네가 그 차를 운전하거라.”

이 5세 짜리 아이는 매우 고분고분하게 운
전석에 앉아서 커다란 운전대를 잡으려고 노
력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운전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가 떠날 때, 나의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노력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무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달을 밟으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차가 움직이
도록 손잡이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
니다. 그는 계기판을 거의 볼 수가 없었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크고 아름다운 갈색 눈에 눈
물이 가득 고인 채 나를 다시 쳐다보았습니
다. 내가 떠날 때, 그는 “아빠, 저를 남겨 두
고 가지 마세요.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전 너무 어려워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사막에서 운전을 하면서, 나는
갑자기 내가 행했던 엄하고 무서운 순간을 깨
달았습니다. 나는 차를 급히 세우고 문을 열
고 나와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
니다. 나는 차, 열쇠, 가재 도구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 두고 뛰었습니다. 길 바닥

은 너무 뜨거워서 나의 발이 타는 것 같았고
눈물 때문에 지평선 어딘가에 있는 이 아이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달렸고 기
도하였으며 용서를 구하고 나의 아들이 안전
하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거
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매트가
운전하도록 남겨 놓았던 낯선 차를 보았습니
다. 그 차는 길 옆에 잘 대어 있었고 그는 그
근처에서 웃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늙은 남자가 매트와 게임을 하면서 함께 있었
습니다. 매트는 나를 보고, “안녕, 아빠. 우
리는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라고 말하
는 것처럼 무엇인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에게 행한 나의 심한 잘못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을 쳐다보는 늙
은 남자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감사
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눈은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어색한 사과의 말을 하였고 그 낯선 사
람은 간단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도록 그를 혼자 남겨 두
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요
청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나는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의 베개는 땀인지 눈
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젖어 있었습니다. 나
는 이불을 제치고 아들의 침대인 금속으로 된
작은 흔들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자고 있는
그를 껴안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아버지는 실수를 하지만 일
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다섯 살 혹은 열 다섯 살일 때, 때때
로 아버지는 아들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들
이 원 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오랫동안 작은 소년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

면 너무 일찍 성장해 버리고 어른이 되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루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동생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이겨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는 결코 나의 사랑 혹은 그를 용서하는 것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건대 그도 나를 용서하기를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의 아버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러한 커다란 책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의 수많은 밤에 맹세했던 완전한 아버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완전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 주신 다음의 현명한 권고를 믿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게 하고 애정을 항상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며 여러분이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면, 결코 그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큰 죄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정에서 몰아 내고 여러분의 애정을 거두어 들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고 아울러 여러분은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여러분과 단합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복음 교리, 253, 285페이지)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계속 구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켈키 장로

고귀한 세대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회장단

“사악한 세상을 좇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신권회 시간에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도 거론하겠지만 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회의 초창기에 지도자들이 가정의 환경에 따라 그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자녀들에게 건전한 가정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모의 책임에 관해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밤 그런 종류의 권고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매우 광범위한 연구를 끝마쳤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가정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대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세워 놓은 생활 양식과 가정에서 키운 가치관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의 물리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많은 책



임을 지고 있지만 자녀들도 역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밤 나는 주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의 책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임은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가정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때에 이곳에 있게 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세에서 자격을 얻었음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이 지상에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극히 힘든 환경 하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가장 어려운 시련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믿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말은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온 다른 어떤 세대보다 선천적으로 더 낫거나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 또는 유익을 얻을 자격을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여러분보다 앞서 간 사람과 같이 곧 타락하여 범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마도 다른 어떠한 세대가 경험한 것보다 더 쉽게 나쁜 길로 이끌리게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시고 중요한 임무를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이 예견하고 고대했던 그러한 중요한 역사의 때에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와 사람들이 놀라운 변형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것은 “배가 찬 경륜의 시대” (교성 112 : 30)로 언급됩니다. 주님과 그의 종들의 진리의 메시지를 지상의 모든 백

성에게 전하고 그들의 참된 주체성을 잃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개심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야곱이 물몬경에서 인용한 예언자 지노스는 이러한 노력을 포도원의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마지막 날에 그 열매를 모으는 일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노스는 구세주를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했는데 그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일하자. 보라 끝이 가까왔으니, 이것이 나의 포도원을 손질하여 다듬는 마지막 때니라.” (야곱서 5 : 62)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였을 때 지상에 왔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때를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세계의 모든 곳에 세워졌습니다. 무대는 공연될 마지막 극적인 장면을 위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연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서 마지막 일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에 씌워진 멍에입니다. 바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은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을 수행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자신도 이 경륜의 시대 마지막의 상태가 대홍수가 있기 바로 전의 상태와 아주 흡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 : 37)

요엘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간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찌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 와서 올라오게 할찌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찌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찌어다.” (요엘 3 : 9-10)

요엘은 이 큰 전쟁이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약점을 위한 시간이나 약한 자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젊은 선교사 동반자인 디

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딤후 3 : 1)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악함은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더 유혹이 많아질 것이며,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풍조가 세상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행동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풍토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기대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고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며 안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사악함이 증가되어 주체할 길 없이 아래로 쏠려 내려가는 힘은 이와 대응하여 위로 향해 나아가는 힘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보다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점점 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되길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일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몇 걸음 뒤떨어져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길은 마침내 우리를 같은 문제와 비탄에 빠지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행하도록 하신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과 그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교성 63 : 54) 될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물문경에서 나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크게 나누실 때가 속히 임하리니, 주께서 간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요.” (니이 30 : 10)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고려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일성도에게 주신 경전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내가 명한 일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여 지키면 이를 모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행위에 따라 혹심한 환난과 전염병과 재앙과 검과 보복과 맹렬한 불길을 시온에 보내리라.” (교성 97 : 25-26)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이름만 말일성도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방법으로 그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은 세상 사람들의 운명과 같아질 것입니다.

내가 청소년 여러분에게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간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조를 맞추어 나가려 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히 멀지 않는 거리를 두고 유행에 쫓아 갑니다. 나는 큰 유혹과 도전을 받아 가면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흠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성 59 : 9 참조) 이러한 길에 충실한 여러분은 우리의 심심한 존경과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뢰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그들의 생활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누구이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제멋대로 불안정한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밤 나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를 향한 길을 택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수 년 전에 나는 뉴 이라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오늘밤 내가 말씀드리는 주제에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한 청년을 접견했는데, 그는 심대에 매우 중한 범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범법할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독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지 1년 남짓 된 지금에 와서 그의 생활은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던 생애의 초기에 내린 결정과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내가 행하는 일이 그릇되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일들을 다시 바로잡고 선교사로 나가리라 확신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고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이 젊은이의 열망을 기쁘게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치 자신이 설정한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듯이 올바른 길을 떠나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다가 다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명백히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일 이 청년과 만난 이러한 경험이 이때 한번 뿐이었다면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도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간에 세상의 금지된 일들을 한번쯤 해보려는 경향과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히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자극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시적으로 탐구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탈선 행위에서 되돌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를 던지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밀한 죄란 없습니다. 이런 죄는 계산하고 예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범법자가 죄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자행했던 가장 교활한 거짓 가운데 하나에 쉽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지방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도록 부탁받은 학생들은 실 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에서 그들 앞에 놓여진 벽차고도 고귀한 도전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성인 연사는 오늘날 청소년의 덕성과 가능성을 칭찬하고, 장차 정복해야 할 새로운 학문 분야와 무서운 질병 퇴치를 위한 치료법과 지상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외교와 인간 관계의 돌파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영감적인 식전이었습니다.

“나는 이 식전에서 이 인상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말일성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은 자신이 수행한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자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나서 곧 겪게 될 경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졸업생들에게 그들이 인류를 위해 바람직한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될 불투명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지금 행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년에 또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학생모와 가운을 반납한 바로 오늘 저녁과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나는 이 졸업생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무리 가운데에는 졸업식을 마치자 아무 생각없이 또는 고의로 자신과 자기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치욕을 끼치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그들의 생활에서 영구적이고 습관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기쁨과 도전 위해 재미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누적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성은 처참하게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인류가 불가피하게 손상받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81년 3월, 33-35 페이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온 목적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중 누구 못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울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전을 상고하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스스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십일조를 내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순결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을 다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더블류 보크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놓여졌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힘의 씨앗과 우리는 그것을 키워서 활짝 꽃 피워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젊은이의 태도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 생활하고 봉사하는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원십일 제인 정원회 회장단의 루머는 저 대릭 정로

진흙 발과 흰 사쓰



매튜 에스 홀랜드

프로보 유폴화 오크 힐즈 스테이크
오크 힐즈 제4와드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질문하며, 비판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며, 무엇이든지 키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의 침대 가에 앉아 그들을 찾아보았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침대는 지금 45도 각도로 밀어서 기울어져 있으며, 어머니는 아직도 왼쪽 다리에 멍이 가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회복되었으며, 아버지는 내가 이곳에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는 오늘밤 이곳에 참석하여 부모님과 가족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예로 들어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남동생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및 영적인 면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 가족은 교회 내의 다른 조직을 포함하여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을 더 잘 합니다.

나는 교회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말일성도들은 교회가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키워 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우리가 여기 이 지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경험의 하나를 자녀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및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각종 공과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과 청년 프로그램은 우리가 신권을 보다 온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영적, 사회적 및 가사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벨기세배 신권과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은 연장자와 좀더 반항적인 세대에게 제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같은 공과를 가르치지 않는 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밤 아버지께 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름 날 아침, 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신 같은 학생 아파트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놀이터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가 마루를 닦고 왁스 칠을 하고 있었으므로 진흙 발로 뛰어들어오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맨발로 샴수도 입지 않은 채 문밖으로 뛰어나가자 어머니는 다시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한 시간쯤 놀았을 것이며 적어도 반 시간은 진흙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가 마루 청소를 다 마쳤을 것이며 나에게 책을 읽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어린 아이 같은 흥분에 가득 차 힘차게 집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운 차게 진흙 묻은 발로 문을 넘어서 계단을 올라서는데 반쯤 올라가니 어머니는 여전히 몸을 굽히고 마루를 닦고 왁스 칠하는

일을 거의 끝내가고 제쳤습니다.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고 이왕 열릴려진 물이라는 생각에 나는 나머지 마루를 지나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나는 이층 창문에서 뛰어 내려야 할지, 침대 밑에 숨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눈물을 터뜨리고 칩대에 작은 몸을 던진 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고조할 아버지를 만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 다행이다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나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지요.” 그 말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일까.” 그런 다음 엄마는 나의 더럽고 흙투성이 발을 들어 입맞춤해 주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경험은 내게 회개와 용서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후에는 교회에서 강조하던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의 큰 경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리석어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엘마서 37:6) 아버지와 아들로써 우리들은 때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또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행위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사가 된 이후로 아버지와 나는 매년 연차 대회 신권회가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또 갈 것입니다. 사실, 신권회에 재미를 느끼기 위해 아이스크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집사로 성임되기 몇 주일 전

에, 언제든지 내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할 때는 항상 흰 셔츠와 넥타이를 매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그와 똑같은 충고의 말씀을 주일학교 교사에게서 듣거나 어떤 교재에서 읽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이 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의에 따라 나는 성찬의 거룩한 의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한 그 간단한 충고의 말씀은 신권이 단지 일이나 지명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귀중한 특권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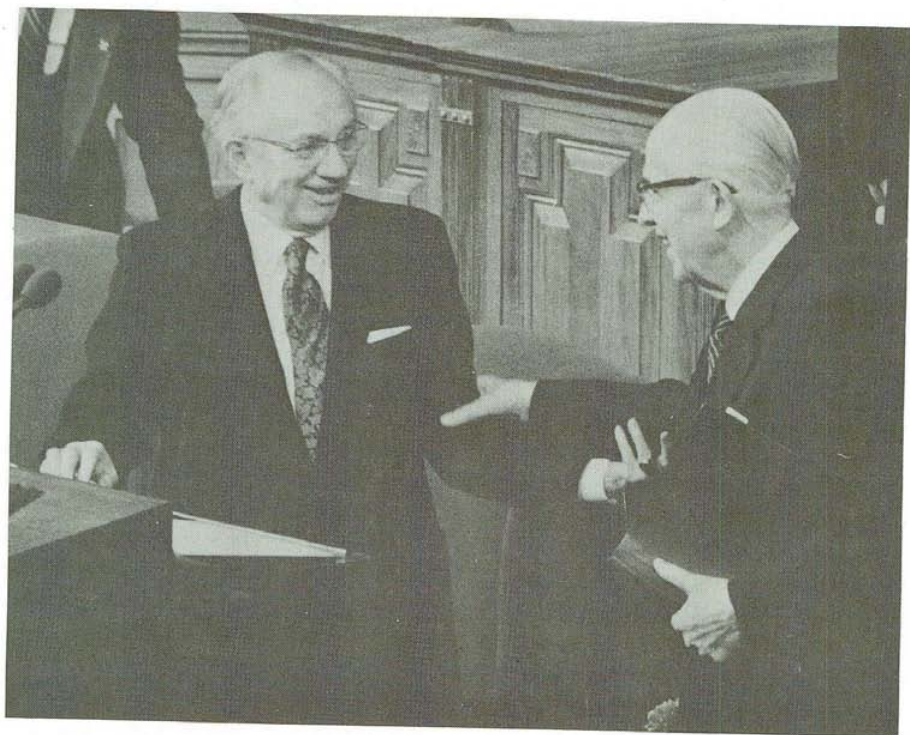
나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관하여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몇 주일 전에 주의 3-에이 농구 선수권 대회가 옥든에서 토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나는 프로보 고등학교 팀에 속해 있었으며, 우리 팀은 마운틴 뷰 고등학교 팀과 우승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팀 선수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늘 하던대로 부드러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앞 열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지만, 나에게서는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보에서 바로 그날 밤에 일 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취임식이 나 연례 졸업식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브리검 영 대학과 유타 대학의 농구 게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게임을 보시지 않고 몇몇 총관리 역원들과 귀빈들을 모시고 내가 하는 게임을 참관하려 오신 것입니다. 것처럼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은 나의 게임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했음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부자 간의 유대만이 아니고, 우정의 유대도 함께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께 나는 중요한 신권 및 영적인 교훈은 다만 교회 프로그램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친국과 같이 만드십시오.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질문하며, 비판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고 무엇이든지 귀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폭풍우 속에서 닻을 내리는 항구요, 피난처이며……행복하게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상호의 책임이 적절하게 혼합되는 곳으로 세상적인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82년, 44페이지)

나는 이 교회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인 우리는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교화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친께서 내 생활에 보여 주신 위대한 모범에 대하여, 그리고 부친이 항상 신권을 존중한 방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합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 사이임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부자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왼쪽)이 미소를 띄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탕트 벤슨 회장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풍요로운 가정 생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의 단합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모가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지침

형제 여러분, 나는 겸손하게 이 연단에 있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께서 연차 대회의 신권회에서 거듭해서 신권의 단합을 호소하신 것이 기억됩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 27)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자주 인용하시곤 했습니다.

신권의 단합이 가정의 단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왜 것처럼 많은 가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왜 것처럼 많은 가족이 붕괴되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문란해진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빈쩍이는 유희적인 거짓 광고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폭력은 도처에서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기심과 즉흥적인 만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존경할 만한 행위로 인정되기까지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해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환각제를 남용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성적인 혁명은 가족의 영적,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을 좀먹고 있습니다.

가족을 습격해 들어오는 것 중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은 한때는 간증을 가졌으나 이제는 교회를 혼자 떠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변절자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정책을 불명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십일조를 냈다면 당장 그만둘 거예요.”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에 대한 박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 적대자의 분노와 원한은 더욱 커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전을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옥의 종소리가 먼저 울리기 시작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트 편,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410 페이지) 현재, 22개의 신전이 건축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종이 울리게 될 것으로 압니다.

나는 어느 가족이 붕괴된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가정에서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규칙적으로 지켜 왔는지, 십일조의 법을 지켜 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가족은 과연 안식일을 존중했습니까? 부모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했었습니까? 나는 무엇이 신전에서 맺은 영원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해주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붕괴시킬 수 있게 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어느 가족은 강한 유대로 맺어져 있고 다른 가족은 약할까요? 그 문제점은 무한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강한 신념과 애정을 지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집에 없거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준법 정신이 강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버

지가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머니에게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말라기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지 않고 자녀가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말 4:6 참조)

가정에 아버지가 함께 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며,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면, 안정되고 강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회원들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명하고 능숙한 부모의 지도하에 종교적으로 깊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안주와 안정감을 얻기 위해 점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과장해서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나는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가족이 약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절대성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절대란 아무런 제한이나 예외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족들이 항상 하려고 노력해야 할 어떤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진실성은 모든 가족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가족은 가족의 힘을 알고 그것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족마고우 중의 한 친구가 최근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자신의 집에서 좀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고 암이라는 진단을 내린 재향 군인 병원에서 그를 퇴원시켜 자신의 집의 다정한 울안에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던 그의 여든 한 살의 노모는 자기 집을 떠나 그에게 따스하고 애정 어린 간호를 해주고자 그의 집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형제와 자매도 위

급할 때마다 도와 주기 위해 여러 번 와 주었습니다. 역시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자녀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달려와 24시간 밤을 새워가며 지켜 주어 그가 결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여윌대로 여윌었으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랑받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가족이 그의 병 간호를 정부 기관과 재향 군인 병원에 맡기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광대한 개인적인 힘과 잠재 능력의 근원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알코올을 포함한 습관성 마약 등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기도를 통해 힘의 근원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모가 바쁜 가족들을 모두 잠자리에 서 끌어내어 함께 가족 기도를 드리고 경전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인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결국 함께 모였다 해도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어 낸다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매일 경전을 읽은 데서 오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는 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경전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귀중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경전에 나오는 영웅적인 인물들과 이야기 끝 사자 끝에 있는 다니엘과 다윗과 골리앗, 니파이, 힐라맨과 젊은 용사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잘 알게 될 때 자녀들은 강화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3. **자녀들에게 일하기를 가르칩시다.** 어느 가정에나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4. **자제심과 순종심을 가르칩시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나 자녀들이 다 같이 좋아하지 않을 방향으로 사회가 그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아동 심리 학자인 리 켈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다.”는 경향은 사람들이 친밀하고 신뢰하는 가족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식구의 감정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신경 과민 증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을 모두 다 밖으로 내 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족 특별 기고란,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80년 6월 16일, 60 페이지) 켈크 박사가 말한대로 이것은 물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제심과 순종심 없이는 가족의 단합은 붕괴됩니다.

5. **서로에게 충실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십시오.** 사전에서는 충실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믿음이나 신의를 함축하는 여하한 관계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것, 제정된 권위에 참된 성실을 다 바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리태니카 세계 언어 대사전, “충실”) 가족이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6. **자존심과 자립심의 원리로 가르칩시다.** 오늘날 가족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들이 함께 할 때에도 텔레비전 앞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하고, 듣고, 격려하며,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외로움을 낳게 되며, 그로 인해 내심 버림받고, 소중하지 않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존심은 여러 면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일로 집을 떠나는 아들이나 딸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해라.” 하고 간단하지만 의미깊은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은 자녀들이 스스로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가족의 전통을 살려 나가십시오.** 가족의 어떤 큰 힘은 그 집안의 가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 축복, 침례, 신권 성일, 생일, 낚시 여행, 성탄절 촛극, 가정의 밤 등과 같은 것을 특별한 행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각 가족의 전통은 독특한 것이며, 대개는 어머니의 주관에 의해 행해집니다.

8.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는 자신과 그의 부친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시 아흔 살이 되신 부친의 아파트로 들어서서…… 문을 열면 부친이 일어나서 나에게로 걸어오시며 나를 팔로 열썬 안고 뺨에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부친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팔로 열썬 안고 내 어릴 적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랜디, 내 아들이야, 난 너를 사랑한다.’” (대회 보고, 1963년 10월, 111-112페이지)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사랑을 신체적으로 또는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말하는 것보다 더 품위있는 수많은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부친은 아들이 참여한 의식, 게임, 경주 또는 어떠한 활동이든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어머니의 손길과 시간은 가정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곳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마땅히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의 책임을 가정을 돌보고 남편이 모임에 나가 있는 동안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칠십인 및 스테이크 선교사 대회, 1941년 10월 4일, 8페이지)

이 말씀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다시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형제님,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업은 여러분 자신의 집안에 있을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73년 4월, 130페이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족 간에 나쁜 감정이나 화가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정이 상했거나 의견 충돌로 인한 개운치 못한 감정은 빨리 지워 버려야 합니다. 왜 어느 한 편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따스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생활의 풍요로운 인간성이 회복되어 우리 모든 친족들 간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행정적인 면에서 짐을 안고 있는 우리 신권 지도자들은 부모가 그들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가? 나는 그 대답은 기본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의 성역의 기간 중 마지막 때에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 : 31-32)

부모님들은 돌이키고 굳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와드와 지부와 정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굳게 하도록 하는 큰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

은 위대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이유로 감독이나 다른 신권 지도자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염려를 보이는 것은 중요한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좀더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온전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선하심과 자비하심 등 모든 일을 교회와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과거의 종교는 혹독한 광신과 편협과 불관용으로 점철된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강제나 위압적인 영으로가 아니라, “은화함과 은유함과 거짓없는 사랑” (교성 121 : 41)을 토대로 한 자유 의지의 영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입니다.

자, 이러한 승화된 개념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어떠한 지시나 가르침을 줄 때는, 어떠한 독재성이나 불의한 지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권의 열쇠와 권능은 “의의 원칙” (교성 121 : 36)에 의해서만 운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를 통해 최근에 신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사업을 전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모든 형제는 지금이라도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감적인 변화로 인해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승화된 원리에 기초를 둔 태도가 확대되었다면 어떤 것인가 하고 나는 의문을 품어 봅니다. 신권의 책임이 확대되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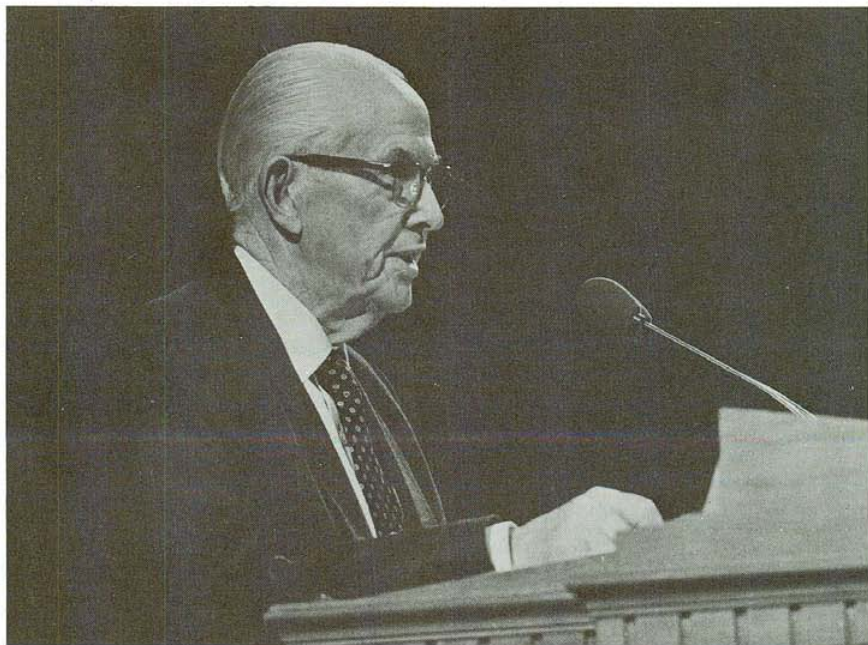
리는 우리의 일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죄와 죄인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워드 평의회와 신권 집행 평의회와 워드 수준의 다른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길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으로써 개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영감받은 것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다만 개인과 가족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시기를 원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의 목적입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우리의 생활과 가정에 질서를 세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위대한 절대성에 참되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우리 시대에 거룩한 복음의 회복, 불문경의 진실성,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 교회와 그 회원들의 필요성에 따라 그 후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계시를 주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들의 인도에 따라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간다면, 우리 가정은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삶은 순결하게 되며,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엘마가 권고한 대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모사이야서 18:9)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신권에의 부름 : “내 양을 먹이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여러분이 양떼를 지키고, 먹이며, 돌보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몇 마리를 잃어 버렸을 경우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들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봉사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인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 영혼을 다하여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날을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깨닫고 합당하게 될 것을 지금 결심하도록 권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메시지는 신권에의 부름: “나의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 회원과 지도자에 대한 구세주의 묘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그를 따르는 자를 양이라 불렀고 신권 지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에 대한 참된 목자의 관심의

있을 수 없는 그의 모범을 기억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 18 : 12-13)

예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그의 양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였습니다. 현대의 목자와는 달리 그때의 목자는 양떼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인도하였습니다.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고 보통으로 각 양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양은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고 그를 믿었으며,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 때면, 양은 목자에게로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0 : 14, 16 참조)

밤이되면 목자는 그의 양을 목양장으로 불러는 우리에게 넣을 것입니다. 목양장 주위에는 높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들짐승과 도둑이 넘어 들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꼭대기에는 가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굶주린 들짐승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양 가운데로 들어와 양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와 단지 월급과 임무 때문에 일을 하는 고용된 목자를 구분시켰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양 가운데 들어가서 양의 안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면에, 고용된 목자는 양보다 우선 자신의 개인적 안전을 생각하고 매개 위험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는 그가 선한 목자, 곧 참된 목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의 시대의 이러한 상식적인 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 : 17, 18 참조)

결국,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곧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후,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어린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15-17 참조)

새로 임명된 우두머리 목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상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떤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가 주님이 든 예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의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대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의미있는 상징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주의깊은 목자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방식으로 유혹에 빠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몇몇 스테이크의 대표적인 실례를 신중히 숙고해 보십시오.

—미국 동부에 있는 한 스테이크에는 약 300명이 넘는 벨기세택 신권 소유자와 그와 같은 수의 잃어 버린 양인 수련 장로가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스테이크에는 1,100명의 벨기세택 신권 신권 소유자와 또 한 1,100명의 수련 장로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에 있는 한 지역 스테이크에는 360명의 벨기세택 신권 소유자와 800명이 넘는 수련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수만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목양장과 사랑의 목자의 조심스런 돌봄이 없이 양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관심을 나타낼 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부 유타에 있는 한 스테이크에서 수련 장로를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수가 벨기세택 신권을 가진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임은 그 스테이크의 성찬 모임의 참가율을 14퍼센트 상승시켰습니다.

아리조나의 한 스테이크는 47명의 수련 장로를 벨기세택 신권에 승진시켰습니다. 워싱턴 주의 다른 스테이크도 같은 수를 승진시켰습니다. 양쪽 다 신전 준비 세미나를 계속 사 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지역 선교부는 복음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의 도움으로 600명 이상의 회원을 다시 활동 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 아메리카의 한 스테이크는 많은 기도와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 1년도 채 못되어 146명의 수련 장로를 다시 활동화시켰습니다. 45명 이상이 지금 벨기세택 신권의 직분에 성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몇몇 양은 거역할 것이며, 몇몇은 “목자에게서 도망하여 숲의 맹수들에게 쫓겨 흩어져 먹히는 들양과 같이” (모사이야서 8:21)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중 대부분은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으로 복음 가운데서 새로이 태어난 많은 신 회원들이 복음 지식과 표준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은 과거의 낡은 습관과 과거의 친구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우리의 어린 양인 많은 젊은이들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방황한다면, 목자의 지팡이와 사랑의 품이 그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목자의 관심으로 현재 양떼에서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결혼 상대자의 생활 양식을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문제는 심각하고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 문제점에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임무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대답은 양을 지키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권의 보살핌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고용인이 나타내는 가장된 관심이 아니라, 참된 목자의 진정한 관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참된 목자가 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가정 복을 교사.

여러분은 해야만 할 때 여러분이 담당한 가족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의 관심을 알아내고 생일과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여러분이 담당한 가족의 복지에 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일 먼저 집에 오는 사람입니까?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은 가족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당하는 가족 중 한 가족이 이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새 주소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과 친구와 친척을 확인했습니까?

목자-스태이크 부장, 감독,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은 새로운 개종자를 여러분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새로운 구도자를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였습니까?

그들은 가정의 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가족이 여러분들 속에 쉬어서 환영과 편안함을 느끼니까?

여러분은 합당한 형제 회원에게 침례를 베푼 후 신권의 직책에 성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의미있는 교회의 임무 지명을 주었습니까?

목자-스태이크 부장, 감독,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은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 “자신의 입장”이 되어 대화할 수 있는 고문과 그 밖의 다른 사람을 임명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혼자, 이혼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의깊게 보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중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형제를 준비시키십니까?

여러분은 특히 아론 신권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과정에 있는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이 새로운 목자인 정원회 회장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귀환 선교사가 18개월 동안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비활동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중요한 교회 봉사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방문 교사를 이용합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그들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벨기세백 신권과 신전을 준비하고 있는 수련 장로를 격려하기 위해 신전 준비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 담당이며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도록 권유받고 있는 나이가 많은 수련 장로를 갖고 있습니까?

젊은 수련 장로에게 장로 정원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창 18:14 참조) 몇몇 사람에게 의해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한 형제는 인봉 제단에서 신전 봉사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 하였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토요일 저녁 지도자 모임에서 나는 한 형제가 단호하게 “나는 활동 회원이 된 이후로 사탄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사탄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적극적인 활동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도와 주고 있습니까?

목자-스레이크 부장, 감독, 정원회 회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 하에 교회 회원, 특히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회원들이 진출할 때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 이전한 새 주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록의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록을 “주소 불명”란에 철해 두고 있습니까?

목자-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여러분은 아침과 저녁에 가족과 함께 가족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번씩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도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목자-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엄숙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0:28)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책임을 여러분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우리는 여러분께 새로이 헌신의 노력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양 떼를 지키고, 먹이며, 돌보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몇 마리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을 경우,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들을 찾으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기쁨을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행한다면, 주님은 여러분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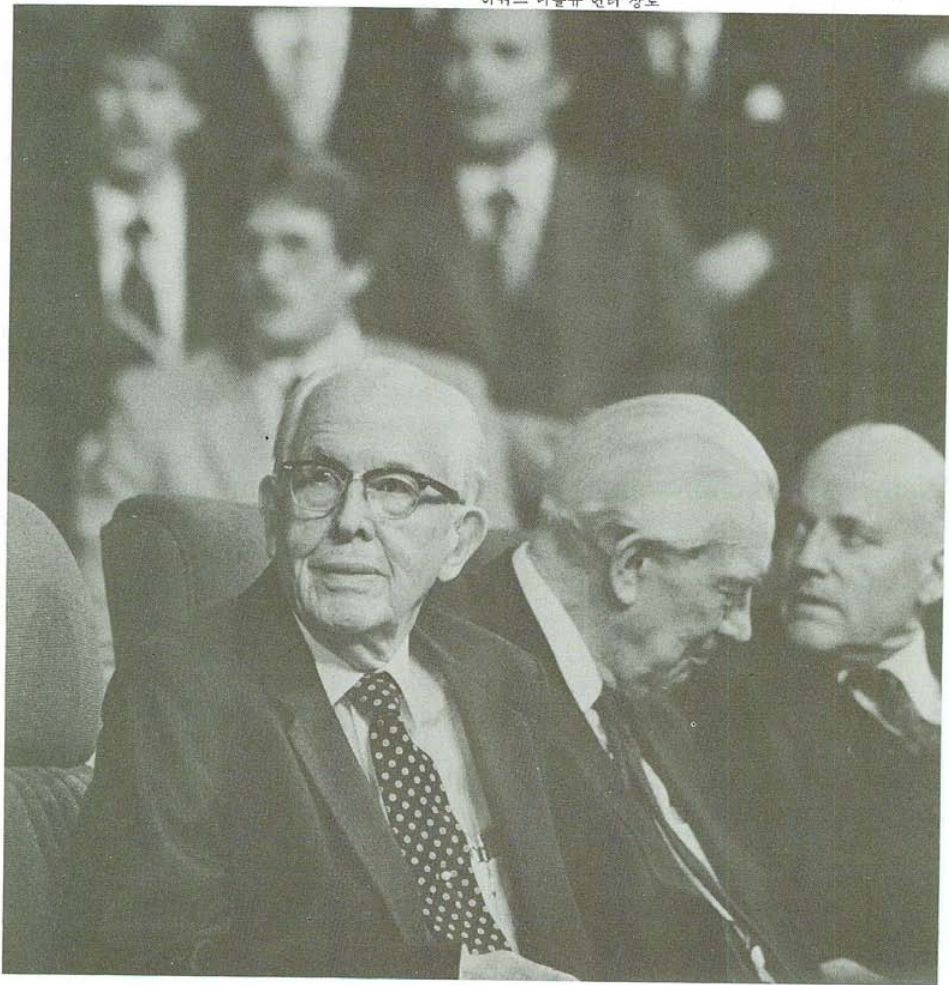
주의 깊은 목자인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께 여러분의 양떼를 알고 그들도 여러분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의무이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이 과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의무를 행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왼쪽부터 에즈라 매프트 멘슨 회장, 마크 이 피터슨 장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을 이겨 낸



고든 비 횡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맥주와 술과 담배와 마약 및 춘화의 해로운 유흥을 아른 신권 소유자들은 훌륭하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 모임에 나와 주신 수많은 청소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특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군대는 한쪽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른 군대는 반대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여섯 굽잇한 뺨이었습니다. 그걸 바로 계산해 보자면, 9피트(270센티미터) 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농구 센터가 됐겠습니까!

갑옷으로 무장한 그는 계곡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대회 방문자와 함께 포즈를 취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베리 장로(중앙)

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삼상 17:8-10)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거인을 보고 그의 소름끼치는 도전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 거인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으므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의 어린 아들에게 군대에 있는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싸움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다시 나와서 똑같이 도전해 오는 말을 했으며 이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했던 다윗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 거인을 것처럼 두려워 하시나이까. 내가 가서 그와 싸우리이다.”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삼상 17:33)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나가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구해 내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운 일을 말하고 주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구해 내시리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이미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으니 한 사람쯤 더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그리 중대한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는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17:37)

그런 다음 사울은 다윗이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나이다.” (삼상 17:

40)

이 어린 소년은 물매와 다섯 개의 돌을 가지고 신앙의 갑옷 외에는 어떤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오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 말에 다윗은 이처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니 알게 하겠느니라.” (삼상 17:42-46)

어린 소년이 9피트나 되는 거인에게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난 골리앗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거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삼상 17:49)

여러분은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나운 거인들이 여러분을 파멸시키려 듭니다. 그들은 실제로 키가 9피트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이지만 악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고 여러분을 약하게 하고 파괴시키려 드는 사람과 제도들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맥주, 술,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꿈쩍 못하고 그러한

것을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많은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암매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거대한 마의 손질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수천만 달러의 기업입니다. 매력적이며, 흥미롭고, 호기심을 끄는 춘화도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여러분을 파멸시킬 행위로 몰아 넣기 위한 잡지, 영화 및 기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인들은 가공할 만하고 교묘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옴아 매고자 합니다.

그들의 제품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모두 막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제품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에 진리의 물매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고와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복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적들에 대항하여 사용할 덕과 명예와 정직이라는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한 여러분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양 눈 사이”로 그 돌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러한 것을 피하도록 자제함으로써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에서 말했듯이, 그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베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게 가노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는 소년들 중에서 이러한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켜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호하려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의 성역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을 겁내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터전에 굳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 여러분은 승리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싸워 이긴 싸움을 만족하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만하고, 속임수를 일삼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유혹이 닥칠 때는, 다윗이 가드 출신 블레셋인에게 행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잠시 동안, 다른 주제로 특히 좀더 나이 드신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안에 최고급 카펫과 가구와 전기 제품 및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놓았습니다. 집안에 최고급 승용차와 값비싼 보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도적이 들어와 강탈해 갈 것을 두려워한 그는 값비싼 이중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열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창문과 문마다 최강살을 대었으며 그래서 그 집 밖에서 쳐다보면 그는 감옥 밖을 내다보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불청객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전기 불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값비싼 전자 감시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넓은 지역의 나무와 관목들도 베어 버려 도둑이 숨을 곳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점잖게 “이제 안전하다.” 하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최강살이나 이중 자물쇠 또는 경보 장치나 사이렌 기타 그런 종류의 어떠한 것들도 그의 자녀들의 생활을 망치게 하고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복의 근원이 되었던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고, 그가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비열함과 쓰라림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를 절망과 비참함을 느끼는 지하 감방에 가두게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침입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 교회 회원의 백분률

로 따져 보자면, 그들은 비교적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흔하게 그 모든 경우는 비극적입니다. 그것은 예외없이 남편과 아버지가 주요 범죄자이며, 죄와 이기심이라는 침입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루어 온 오래 된 주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되풀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한층 더 교활한 침입자들이 정정 당당히 초대받은 손님처럼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도둑이나 성가신 자들을 막기 위해 쇠창살을 치고 이중 자물쇠와 전자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집니까.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해가 될 혼화를 멀리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해 전에 죄를 짓고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을 다시 축복해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내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나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모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 내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는 비행기에서 혼화 잡지를 꺼내 읽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을 더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를 돌고 자극시키는 영화를 찾아 다니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이러한 것에 동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혼자서 갔습니다. 그는 때로 그 지역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더욱 쉽게 탐구할 수 있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을 구실을 대고는 자기 비서에게 자기와 함께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그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 책상의 맞은 편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그 잡지를 읽었던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그에게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 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부끄러움과 곤혹을 겪었을 자녀들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문당한 때로부터 4년 동안 겪었던 지옥같은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그 충분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그의 신권과 신전 엔다우먼트, 신전 인봉 의식 및 그가 전에 받았던 모든 다른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크고 전장한 사람은 내 손 밑에서 아기처럼 울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손을 잡힌 채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 포옹했으며, 그는 아내에게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를 사랑하며 언제나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나 역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의 어리석음과 범범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또 그의 가족에게도 심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와 같이 항상 행복하게 끝맺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과 증오로 인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사랑했던 마음이 증오심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애정이 식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물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제단에서 손을 맞잡고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사랑과 충성과 애정을 함께 나누기로 맹세한 아내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여러분 자신은 강철과 기계 장치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며, 지키지 않으면 육체적, 영적인 면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50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의 학교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택된 신권 소유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이 없었던 당시, 최초의 예언자의 학교는 뉴웰 케이 휘트니 감독의 집 조그만 방에서 열렸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도 이 학교의 초기 참여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 모임시에 자주 발생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방 3 내지 4미터 쯤 되는 작은 방에서 열리는 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형제들이 수백 마일을 달려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 후 이 방에 모이면 맨 먼저 파이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들은 왕국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입에서 파이프를 빼면 곧 커다란 여흥면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예언자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올 때 쯤 되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파묻힐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청소할 때마다 불경을 늘어 놓게 되어 마침내 예언자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배를 피우는 장로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설교집, 12 : 158)

예언자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휘트니 집에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시는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교성 89 : 3)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계시에 포함된 원리에 순응할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1922년 내가 처음으로 영국에 선교 사업에 나갔을 때, 차 마시기를 끊기가 어려운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차 마시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1851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교회 연차 대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성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교회 회원들에 의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속력있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회원들의 독특한 승인된 관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훌륭한 회원들은 담배, 커피, 차, 모든 알코올 음료를 삼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심장병, 암, 기타 질병의 발생률이 훨씬 적다는 것이 과학적인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조사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훨씬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요셉 스미스 예언자적인 부름의 영감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구도자는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이 가장 관심을 끈 계시로 그로 인해 구도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현재와 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알려진 담배, 술, 차, 커피의 해로운 영향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의학적인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초로 하여 복음을 열심히 찾아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여년이 넘어서야 의학의 연구로 실증된 문제를 요셉 스미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교회의 나머지 다른 가르침도 구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도자가 되었으며, 지금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청소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복음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으로 그의 자녀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그러한 율법에 속한 축복을 받게 되며,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율법—즉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며, 지키지 않으면 육체적, 영적인 면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율법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그 계시는 다음과 같은 해로운 물질과 음료를 금할 것을 정의하고 권고합니다.

“독한 음료[다시 말해 알코올이나 해로운 음료]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교성 89 : 7)

“담배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교성 89 : 8)

“뜨거운 음료[차와 커피로 정의됨]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교성 89 : 9)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야채류는 인간의 신체와 활력과 이 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니라.

“철마다 나는 모든 야채와 철마다 나는 모든 과일

“짐승의 고기와 공중의 새의 고기도……조금씩 사용할지니라.

“모든 곡류는 사람……의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니……

“모든 곡류는 사람의 식용으로 좋은 것이니라. 또…… 냉쿨에 달린 열매도 좋은 것이니라.”(교성 89 : 10-12, 14, 16)

이 계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조금씩 사용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동물을 닥치는 대로 죽이지 않도록 권고하시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성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거나 필요없이 고기를 낭비하는 자에게 화있도다.”(교성 49 : 21)

곡류는 특히 냉쿨에 달린 열매, 야채 및 모든 과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영양식과 식사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과 지구력, 여러 질병에 대하여 강건한 신체를 단련시키도록 수없이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순종할 때, 육신에 대한 약속은 이러합니다.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 20)

그러나 나는 지혜의 말씀과 다른 모든 계명의 순종에 대한 더 큰 축복은 영적인 면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 왔습니다.

영적인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릇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지혜와 지

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교성 89 : 18, 19)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은 지혜의 말씀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 부수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기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교성 89 : 19)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면서 주님의 영감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불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가 주어져 이 생애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영원토록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모두 이 원리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본적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는 “깨끗한 예지”로써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페이지 참조) 이것은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신에 의존하기를 배워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복음에 대한 생생한, 살아 있는 간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이란 우리가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참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 그때마다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개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영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이 약속의 실현됨을 간증드립니다.

이 계시에는 현대 세대에게 적절한 경고가 되는 또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성 89 : 4)

주님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피어 그들의 몸이 해로운 물질을 넣게 되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하셨습니다. 맥주, 포도주, 브랜디, 위스키, 커피, 담배,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을 장려하는 광고는 주님이 예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장 치명적인 사악한 음모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사용하도록 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사탄과 그 사자들을 여러분을 피어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이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에 방해를 받고 여러분이 그들의 사악한 힘 안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장소나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악한 것인가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지혜의 말씀의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기념일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웰 케이 휘트니스 상점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점은 현대의 표준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구조이지만, 그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입니다. 150년이란 세월은 지혜의 말씀이 건강을 위한 방법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15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며 생활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적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뚜렷이 한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커틀랜드에서 새 날의 여명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1836년 최초의 신전 헌납 이후, 커틀랜드에 세워지게 되는 최초의 집회소 기공식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그곳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새 건물을 헌납하였습니다. 헌납식에 이어 우리는 초기 커틀랜드 성도들의 후손인 58명의 비회원이 참여한 특별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비회원들 중에서 방금 칩레를 받은 사람도 있고 현재 준비 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된 커틀랜드의 내년이면 또 하나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현대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지시하시며, 그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생에서 귀중한 화평의 약속을 받게 되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태버넌클 계단에서 본 솔트레이크 신전

익명의 봉사 행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익명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봉사 행위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과 주는 사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느 환자를 문병하러 가서 그의 방호수를 알기 위해 큰 병원의 안내계로 다가갔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역시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안내계원이 앉아 있는 책상 뒤에는 이와 같이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문을 새긴 훌륭한 감사패가 있었습니다. 8천 만원을 기부한 자들의 이름은 유려한 필체로 새겨져 각 이름이 본래의 큰 장식판에 빛나는 사슬로 매달린 각각의 동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부자의 명단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제의 지도자, 산업계의 거물, 학식이 높은 교수들의 명단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선전 덕행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시선이 다른 동판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다만, “익명”이라는 한 마디 밖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누구일까 궁금하게 여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다

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조용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성지로 향했으며, 이 부활 주일에 특히 머리에 강하게 떠오르는 그분에게 향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특별히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행위의 참된 영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1,3)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뜻이, 주님은 많은 무리를 뒤따르게 하시며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마 8:2-4) 거기서 익명이라는 말은 귀중한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서에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 역시 우리에게 익명의 참을성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차알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7년 전에 죽은 옛날의 동업자였던 제이콥 마알리가 돌아온 것을 환영으로 보고 별별 떠는 에비니저 스크루우지의 모습을 나는 생생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알리의 한탄 섞인 말이 내 가슴 속을 파고 듭니다. “좁디 좁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 스피릿(기독교 정신)이 제 아무리 가지 각색으로 친절히 베풀어진다고 해도 유익한 일을 세상에 베푸는 길은 너무 많고 많아서 유한한 인간 일대를 가지고는 그것들을 달성하기에 너무도 짧은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니! 그리고 또 한번 밖에 없는 일생의 잘못을 저지르면, 나중에 아무리 후

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니! 내가 바로 그런 바보였던 것이야!” (“크리스마스 캐럴,” 정음사, 1981년, 388페이지)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과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과 미래 크리스마스의 유령이 스크루우지에게 생활하고 사랑하며 선사하는 일의 참뜻을 보여 준 초조한 하룻밤이 지난 후, 스크루우지는 깨어나 인생의 생동감과 사랑의 힘과 참된 선물의 정신을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보브 크래킷 가족의 곤경을 기억하고 한 소년을 시켜 커다란(소년 크기 만한) 칠면조를 사오게 하여 크래킷 집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 말할 수 없이 기쁨에 넘친 스크루우지는 “누가 보냈는지 알리진 말아야지.”(크리스마스캐럴 캐럴,” 447페이지)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도 익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래 시계를 통해 모래는 흐르고 있으며 역사라는 시계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는 쇠퇴하거나 묻어지지 않으며 또 변함없이 전파됩니다.

웅장한 원양 여객선 루시테이니아 호가 대서양의 바닥에 침몰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어 간 사람들의 용기있는 많은 행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루시테이니아 호와 함께 침몰된 한 사람은 전혀 수영을 못하면서도 자기의 구명구를 어떤 부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미국인 억만 장자 알프레드 밴더빌트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보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지나 다른 보석들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 대한 명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물은 다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선물”, 랄프 월도 에머슨의 전집에서, 뉴욕: 윌리엄 에이치 와이스 앤드 컴퍼니, 1929년, 286페이지)

일년 전 지난 겨울, 최신식의 제트 여객기 한 대가 이륙 후에 비틀거리더니 얼음에 덮인

포토맥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수많은 용감한 행위와 영웅적인 공훈이 눈에 띄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것은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구조 밧줄이 허우적거리는 생존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에게 내려진 안전한 생명 줄을 잡아 그 줄을 다른 사람에게 매어 주었으며, 묶인 사람은 무사히 끌어올려졌습니다. 밧줄이 다시 내려왔으나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구해졌습니다. 얼음이 덮인 강에서 다섯 사람이 구조되었으나, 그 중에는 익명의 영웅을 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도 밝히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밝은 창공에 명예를 남겼습니다.”(스티븐 스펀더, “언제나 그들을 생각한다.” 종교사의 결작선에서, 제임스 델튼 모리슨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러더스 출판사, 291페이지)

죽어 갈 때에만 참된 선물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지킴을 보여 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약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느 겨울 아침에, 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두 아들을 깨우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어제밤에 눈이 내렸구나. 옷을 입고, 날이 밝기 전에 이웃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눈길을 삼으로 치우자꾸나.”

세 사람의 일행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여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눈을 치웠습니다. 아버지는 소년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라. 누가 그들을 도와 주었는지 모르도록 말이야.” 여기에도 익명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2) 우리 골짜기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서 두 청년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환자가 “아이, 추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중의 한 청년이 그녀에게로 건너가 자기의 걸저고리를 벗어 그 환자의 어깨에 걸쳐 주고 어깨를 다정하게 도닥거리 준 다음

성찬 테이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성찬이 축복되고 모인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오늘 여기에서 한 행동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상의를 입지 않으면 성찬을 축복하는 데 합당한 복장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형제님보다 더 합당한 복장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도 익명의 존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철의 장막과 “베를린”이라는 장벽 너머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나는 소수의 회원들과 함께 조그만 공동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때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하루 종일 찬비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업을 위해 봉사하다가 여려해 전에 죽은 한 선교사의 무덤을 찾아보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주위에 모였을 때 중요한 정적이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묘석을 비취 주는 회중 전등 불빛으로 나는 그 비문을 읽었습니다.

요셉 에이 아웃

1870년 12월 12일 유타주 버진에서 출생

1896년 1월 1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별세

그때 그 불빛으로 이 무덤이 공동 묘지의 여느 무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묘석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고, 다른 무덤을 덮고 있는 잡초도 없었으며, 잔디가 깨끗하게 정돈되었으며, 정성이 한아름 담긴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이 무덤을 이렇게 보기 좋게 가꾸어 놓았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의 물음에 침묵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열 두 살 된 집사가 이 알려지지 않은 친절은 부모나 지도자들이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원하여 그렇게 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봉사 사업에 생명을

바친 선교사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을 지켜 주어 그의 선물이 익명으로 남아 있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내가 읽은 어떤 작품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헨리 반 아이크의 불후의 작품 “저택”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에 남고 아름답게 잘 표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전 작품에는 부자이며 정치 권력의 시행자이고 훌륭한 시민인 존 웨이트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선에 대한 그의 철학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출것인가를 세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주어서는 안되며, 거지의 모자에 돈을 넣어 주어서도 안됩니다. 확인될 수 있고 주위 모든 것에 이익되는 일에 기부를 하십시오.” (“저택,” 알려지지 않은 낭만적인 이야기, 뉴욕 : 스크라이브너사, 1919년, 337, 339 페이지)

어느 날 저녁, 존 웨이트먼은 그의 서재의 안락 의자에 앉아 앞의 책상에 펼쳐진 신문을 찬찬히 훑어 보았습니다. 기사에는 웨이트먼 국민학교의 개혁에 관한 기사 뿐만 아니라, 병원의 웨이트먼 익명의 사진과 설명, 그리고 정치 법률학계의 웨이트먼 의장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존 웨이트먼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가족 성경을 집어 들고 한 구절을 펴서 혼자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에는 썩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 : 19, 20)

그 책은 그에게 스스로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 깎지런 손에 머리를 대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꿈에서 존 웨이트먼은 하늘 나라의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안내원이 그와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하늘 나라의 그들의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대 저택 앞에 잠시 멈추어 안내원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맥킨 박사님, 이곳은 당신을 위한 집이니 들어가십시오. 이곳은 병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옛날 적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했던 모든 선행과 당신이 베푼 모든 도움과 당신이 가져온 모든 안락함과 당신이 고통받은 자들에게 준 모든 힘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저택 안에 그것들을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저택,” 361-62 페이지)

병약한 아내의 헌신적인 남편에게는 아름다운 저택을 보여 주겠으며, 일찍 미망인이 되어 가족을 훌륭하게 기른 어머니와 30년 동안 침대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누워 있던 불수의 젊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기쁨과 화평을 자기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는 일념을 목표로 하여 용기라는 기적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존 웨이트먼은 그에게는 어떤 저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와 문지기가 계속 걸어가는 동안 집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황량한 벌판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겨우 목동의 피신처나 될 정도의 오두막집을 보았습니다. 안내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 웨이트먼씨, 이것이 당신 집입니다.”

절망에 빠진 존 웨이트먼은 “당신은 내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의 익벽과 또 교회를 세운데나 세웠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잠깐만요.”라고 안내원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세상에서의 존 웨이트먼의 명성과 저택을 위한 기반으로 이용되

고 표시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두 번이나 받으려 하였습니까?”

한층 더 큰 슬픔으로 현명해진 존 웨이트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그 대답은 이리하였습니다. “다만 참되게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계획하는 것입니다. 보상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스스로 잊어버리는 선물입니다.” (“저택,” 364-68페이지)

존 웨이트먼은 일곱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밤중 내내 잠을 잤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보니 그에게는 아직 더 살 수 있는 인생과 나누어 줄 사랑과 전해 줄 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되지 못하며,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는다.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대로 접어 두지
말라.

사랑도 내어 주지 않으면 결국 사랑이 되지
못한다.

(리차드 토저스 앤드 오스카 햄머스타인 2
관, “열 여섯에서 열 일곱으로”)

이 진리가 우리 생활에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를 올려다 보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가르침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갈릴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 6:1)

익명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봉사 행위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과 주는 사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회개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개란 일생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약함과 실수를 항상 인식하며 보다 높고 훌륭한 것을 구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두 개의 반칠 달린 크리스탈 유리 잔을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개의 유리 잔은 크기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둘 다 품질이 좋으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 컵은 자기류를 두는 찬장에 잘 보관되었으며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고, 외양이 온화하여 마음을 끄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컵은 때가 끼인 채 오랫동안 개수대에 버려져 있었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밖에 버려져 화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썩은 시들이 버리고 휴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받아도 광채가 나지 않으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들 각자도 이 크리스탈 유리 잔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기나 모양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특별한 영을 발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디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도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경험이나 아니면 생의 단편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것들, 끈끈한 생각, 신앙,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와 화명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둡고 은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결한 생각과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주 의심과 다툼과 불안감에 젖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인 행복의 추구에 자신의 삶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들은 흠 구덩이 속에서 얼마 동안을 보낸 크리스탈 유리 잔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물에는 더 높은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곧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집을 찾아나섰던 달팽이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해 보면, 그들은 그들이 찾아 헤맸던 목적물에 이천보다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내부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이 참으로 화명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가 마음의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엘마서 41:10 참조) 의롭지 못하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니이 2:13 참조) 그들은 변화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그들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버려둔 화분을 빛나는 크리스탈 컵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해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노력인가? 나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컵의 경우라면 무엇보다 해야 할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탈 컵을 어떻게 해야 보다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내용물을 버리기에 편한 장소가 선택됩니다. 먼지가 거기에 남아 있겠지요. 그 유리 잔의 때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세제로 씻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손질되어 자기를 보관하는 찬장 안의 다른 유리잔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손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화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파오는 잊혀지고 새로와지고 변화됩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승인된 합당한 침례 의식을 받으면 우선 그들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사유함을 받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원대하고 역원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즉각적인 유익과 보상은 현세에서의 화평과 죄의 용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모임이 끝날 무렵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곧 또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답해도 괜찮으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간을 기다려 왔으며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몇 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조그만 방을 찾아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무엇 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삼켜가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께서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세가 되기 전에,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크게 상심하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자포 자기한 그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구실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참다운 이유를 캐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지만, 진실의 내면을 속속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나올 것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독은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연기하지 않고 있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담배를 끊고 곧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피하기 위해 그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훌륭한 말일성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배 피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유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영예스러운 제대를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선교사업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으며 주님으로부터

도망갔으나 자신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그러한 불만족을 느꼈읍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죄를 짓지는 않았읍니다. 저는 모임에 계속 참석했으며 지혜의 말씀도 지켰읍니다. 그런데 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왜 나는 어쩐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리라는 느낌이 들까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회개에 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해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주제에 관해 읽어 보았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인식, 애통, 보상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원리가 형제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인식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못을 범했음을 인식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해야겠지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인가요?” 라고 나는 질문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더니 “자신에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가장 호의적인 면에서 스스로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보다 훌륭한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이지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그리고…… 감독님에게……하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장로님 외에는 아무에게

도 이야기하지 않았읍니다.”

“아마 형제님이 완전히 용서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애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형제님은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의 절반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슬퍼해야 합니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는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범법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후 7:10 참조) 그는 영혼의 고통과 참된 후회를 해야 합니다. 이 슬픔은 다른 회개의 단계를 자극할 만큼 강하고 오랜 기간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행동과 보다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형제님은 그만큼 슬퍼했습니까?”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계명을 지킵니다. 나는 다소나마 나의 부모님께 그것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나는 용서를 받기 위해 간구했으며 내가 잘못을 범한 당사자에게 사죄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을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의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고백하지는 않았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접견이 후에 형제님은 그것도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용서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지요. 형제님이 충분히 회개했다면, 형제님은 마음속에 화평을 느낄 것입니다. 어쨌든 형제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안고 다녔던 죄의 짐이 갑자기 없어졌으므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형제님도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듯이 보였습니다.

“형제님이 이 방을 떠날 때 형제님의 근심을 모조리 이 방에 남겨 두었음을 알게 되어 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회개했을 경우에 느끼게 될 위안과 화평은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형제님을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곧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임 시간에 늦었으므로 문을 열고 함께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녁에 나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워드 형제님,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알았던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 훌륭한 느낌을 가질 것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히 8:12 참조)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교회에서는 24세 된 사람도 선교사로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선교사로 나가도 싶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치 우리가 말했던 유리 잔의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부분적으로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의 시야를 덮고 그의 잠재력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는 그는 자신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과 노력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회개란 대체로 외롭고 소리 없는 투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란 일생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과 실수를 항상 인식하며 보다 높고 훌륭한 것을 구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56년 4월호, 91페이지)

이 젊은이는 회개란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으며 (야고보서 2:17 참조) 따라서 회개도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일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잘못을 알기만 한다거나 해야 할 바를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하나의 주기가 아닙니다.” (휴 비 브라운, 영원한 추구,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레프트사, 1956년, 102페이지)

회개함으로써 나의 젊은 친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세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신이 누구인지 앎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자신의 가치는 제명에 대한 지식과 순종을 통해서만 간직하게 됩니다.”

이전에 흉곽 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이탈리아인 의사인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된 지 몇 달 후인, 약 2년 전에 밀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이목구비가 준수했으며, 어떤 부모라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편지에서 자신에 관한 그의 느낌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장로가 없었다면 나의 생은 행복했을 것이며, 만족으로 가득 찼을 것이지만, 사랑과 믿음과 진리와 지식과 자유에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한 점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기에 지상에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의 머리 위에 임할 위대한 축복(잠 10:6 참조)과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상에 보내시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기꺼이 행할 것을 마음속 깊이 간구합니다.

이 훌륭한 청년은 이제 연령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의 빛 곧 구세주께서 설명하신 바 생명의 빛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생명의 빛을 갖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을 통해 죄의 회개와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형을 선고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그를 처형한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일어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을 세우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한 말일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신 분도 그와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상에 제실 때 주어진 직접적인 가르침과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된 고대 및 현대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통해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모든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계명에 대한 지식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활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란 자기 가치와 자기 예측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에 관한 추구는 조지 티 보이드가 몇 년 전에 한 다음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전 읽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두 가지 중요한 욕구 즉 개인적인 가치에 관한 생각과 자기 예측감을 채워 준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것이든 지 단독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을 편협한 이기주의와 자기 기만으로 바꾸고 자기 예측감이 거짓 겸손 또는 불건전한 자기 경시로 돌려지기는 얼마나 쉬운 일인가!

“경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인 온전한 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존과 자신의 예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전을 경건하게 사용하면 인간을 마비시키는 의혹과 걱정을 평정으로 대치시켜 영적 생활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 (인간과 종교에 대한 견해, 제임스 알렌 공저, 유타주 프로보, 조지 티 보이드의 친구들, 1979년, 207 페이지)

시편 8편 4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아름답고 명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 8:5-6)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

조물을 지배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유일한 특성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 우리는 지식을 키우고 인간의 본성과 우리 주변의 일들의 본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사실을 비교함으로써 논리를 추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사입니다.

5. 우리는 숙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열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일한 능력과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에 관한 강조는 또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되어 부나 인간의 영예를 통해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내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참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

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비계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비계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것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부를 탐하여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6-21)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지방 라디오 방송국의 인기 있는 디스크 자키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전화의 수화기를 들었던 16세 제사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맞추어 값비싼 스포츠카를 상으로 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10대 소년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읍니다. 그를 큰 애정으로 아껴 주던 감

독은 그것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귀증하게 여겨 오던 모든 것을 멀리하게 되거나 앎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와 같은 차가 그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감독은 그 청년이 차를 받지 않고 대신 상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선교사로 나갈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 또는 인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조화시킨 얼마나 훌륭한 예가 됩니까!

나는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또 다른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체육인으로서 놀라운 인정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는 13세 때부터 수영을 시작하여 매주 30시간 동안 계속적인 연습을 했고 결국 그는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으며 1968년 올림픽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3년간 전 미국 대표 선수로 활약했으며 졸업 후 그는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그는 영적인 것을 얻는 일을 등한시했으며, 가난하거나 재능이 없는 자들에게 조금도 온정을 베풀지 않았읍니다. 그는 자기의 참된 가치를 알기 위해 매우 고심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올림픽 선수나 마찬가지로. 나는 마음씨도 착하고 장차 의사가 되어 훌륭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거짓과 헛된 교만에 가득 차 있었읍니다.”

다행히도, 의과 대학 4학년 때, 그는 그의 내적인 갈등을 이해해 주는 한 시골 의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배의 격려를 받아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가 읽는 것 정도는 지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못하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중간 잠
 읽었을 때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읍니다. 그
 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읍니
 다. ‘이해하기 더 쉽게 기록된 장들이 틀림없
 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민수기를 펼쳤으나 더
 욱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읍니
 다.”

결국 그는 배우고 느끼기를 원하면서 올바
 른 영으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갔읍니
 다. 점진적으로 그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더
 욱 더 간구해 나가면서 자신이 하늘에 계신
 사상이 많으신 아버지의 자녀이며 개인적으
 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서서히 깨
 달기 시작했읍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라는 구세주의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나니
 라.”(마 7:24-27)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 구세주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
 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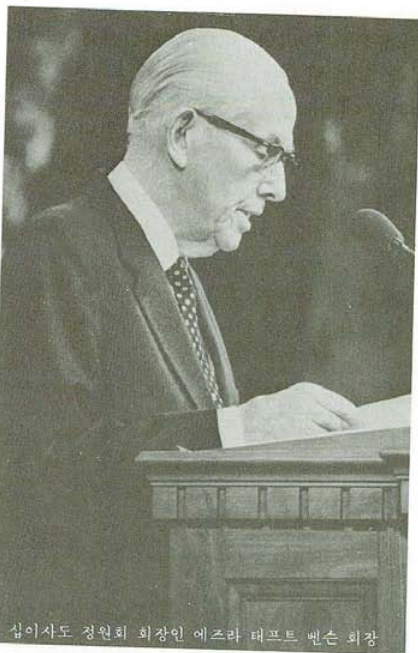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
 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한복
 음 12:35-36)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 아
 니라 빛의 아들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
 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생
 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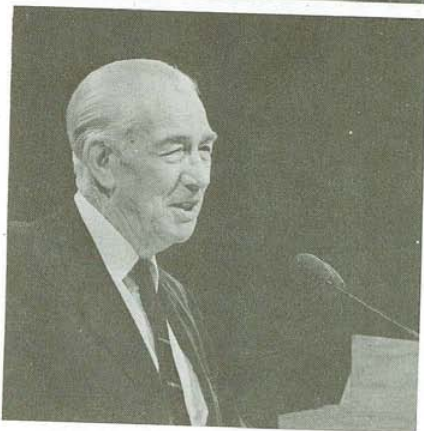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
 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라.”(요한복음 8:1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창조주와 구세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은 빛과 생명의 하나님이며 죽음과 의혹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을 기꺼이 섬기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은 언제나 부활절과 더불어 오며 부활절은 우리의 마음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평강의 왕(이사야 9:6)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 모든 인류에게 선의의 약속을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생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났을 때 예수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사야 7:14)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미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적절한 이름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참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으며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의 구속주와 구세주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지상의 창조,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세우신 일과 위대한 족장과 예언자의 일——이 모든 것은 갈보리에서 그가 이루신 일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단에서 태워졌던 희생의 제물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 계시록 13:8)이라 불리우신 주님의 크신 희생을 상징적으로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전세의 여호와인 예수는 인류가 지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고부터 준비하신 중심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바치신 분도 그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히브리서 5:9)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신 분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음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

그분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그분의 대속을 위해서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일체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동안 살 수 있는 지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구는 당연히 본질상 물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듯이 지상에 살게 될 모든 것이 물질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 지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물질적인 지구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그의 존재는 우리 자신과 같이 뼈와 살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이 지상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육적으로 사망을 당하셨고 그후 그분은 영광스럽게도 육적인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지구는 그분의 사명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주께서 행한 일에는 조금도 지상의 것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하고 만져 볼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지상에서의 그의 삶은 실제적이고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망도 사실이였으며 육적이었고 그분의 부활 또한 그러했으며, 모든 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이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존재로써의 그의 순수한 실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에 관한 계획이 천국 회의에서 세워졌을 때, 그 계획의 일부는 이 특정한 지상의 창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물질적인 구성의 과정에 의한 거룩한 건축 행위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지상이 없었다면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의 무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또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첫번째 부활절 아침에 “다른” 마리아는(마태복음 28:1) 동산에서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 지상의 특별한 창조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목적이 분명한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하늘의 건축가가 이것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가 이것을 만드시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은 단지 인간이 거할 집으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상태로 남아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지상은 불멸의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해의 왕국의 상태가 되고 하늘에서 우림과 돛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교성 130:9 참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거룩한 창조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물론 우발적인 사건으로는 그와 같은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에 속합니다.

지구가 해의 왕국의 상태가 될 때,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거하시게 될 것이며 때때로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이곳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의 왕국의 영광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지구가 창조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구의 창조에는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구의 창조는 문자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이는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6-17)

전능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모세서 1:33)

그리스도는 또한 그 자신이 창조주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 자니”(교성 14:9)

구세주의 계시 중에서 감동적이고 감명깊은 말씀이 이더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야벳의 동생에게 나타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인용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야벳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와 같은 신앙으로 나를 믿은 자가 없기로 아직 내가 지은 인간에게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서 3:14-16)

주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영감받지 못한 이론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최대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시된 진리를 대신하여 우주와 모든 생명이 신비스럽고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한 방법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론을 내세워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사탄의 사슬을 끊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셨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의 복음과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대속을 성취하셨으며 부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써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참되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창조와 생의 목적을 경전에 있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은 독생자임을 간증하셨고 이와 더불어 예수가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17 참조)

그분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각 창조의 단계를 마쳤을 때마다 잘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궁창을 제자리에 놓으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체를 지상에 두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10-31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한복음 1:14)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창조의 사업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그의 아들이 베푼 성역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7)

그분은 니파이인에게 구세주를 소개하실 때도 같은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니삼 11:7)

그리고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힘주어 뒤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증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의심을 없애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잘 하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

시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사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좇아야 할 거룩한 본보기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 : 28-30)

그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하늘도 울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을 때, 천사들이 그곳에서 그를 맞이했으며 마리아도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알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그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끼어 우리 자신을 불신앙의 어둠으로 가리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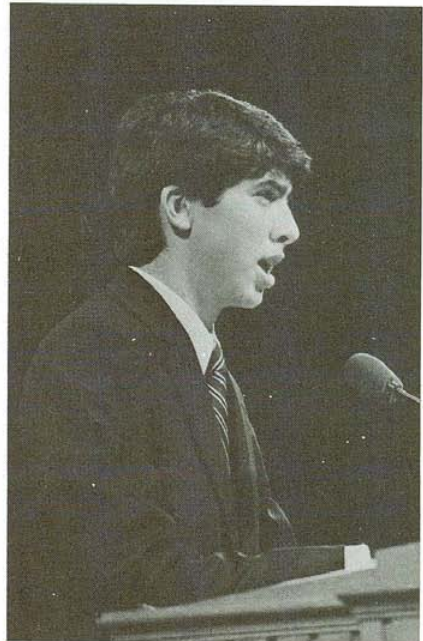
예수님은 빛과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과 의혹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을 기꺼이 섬기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구속주이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말씀 증인 제사 신권을 소유한 매트 홀랜드 형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대리운 지 총니 부대관장
제 1보좌



스웨터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고은 비 침몰리 부대관장
제 2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여즈라 램프드 벨슨



미코 이 퍼터슨



허워드 더블루 원터



포머스 에스 운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닌 케이 예서톤



보드스 암 북윙거



영 용 패더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와우스트



닐 에이 엑스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드영물린 디리차드스



드토마스 윌리엄스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제임스 디 헤이스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제임스 디 헤이스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제임스 디 헤이스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판리 감독단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드레이스 로버트

자유지와 통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책임 없이는 진정한 자유란 없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속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하여 부모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주일 전에 한 사성 장군(대장)과 그의 부인이 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고 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부인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깊은 염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분은 어떻게 젊은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본바 젊은이들에게 그런 품성을 어떻게 기르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이 ‘통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는 복음 원리에 중점을 두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여 주었으므로 나는 자유지의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유를 가르침으로써 통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주제가 잘못된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장(사성 장군)은 엄격한 통제관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면 가장 훌륭한

통한 통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두면서 자제심을 기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건전한 복음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두 주제는 따로 가르칠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반대되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주제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과 자유지의 관계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연관성을 모르고 순종을 억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책임 없이는 진정한 자유란 없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속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그 대장은 곧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교회 회원 중에서도 모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일성도는 순종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지를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제명에 복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며, “그를 머리로 하며 [우리가] 자유롭게”되었습니다. (모사이야서 5:8)

맹목적인 순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으나 복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순종은 외형적인 어떤 통제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통제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군은 왜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디서 개인적인 자유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단력을 얻는지 알았습니다.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 : 36, 27, 40)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르친 것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거부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까?

나는 군에 있을 때 젊은이로서 일본의 니코 강코에 있는 고대 사원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의 건물 정면에는 세 마리의 원숭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손으로 귀를 또 한 마리는 눈을 또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악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하기 보다는 말하기가 더 쉬운 것이겠지요! 세상 사회가 탐닉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자제심을 키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부모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하와이에 있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석했습니다. 한 잘 생긴 젊은 하와이인 운동 선수가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몸매를 축복받았으며 여러 가지 운동에서 뛰어났습니다. 운동 선수가 흔히 그렇듯이, 그는 교회 안팎에서 두루 유명했습니다. 그의 운동 코우치는 주로 그의 육체적인 힘을 조정하는 면에서 훈련시켰으며 결단력과 용기 같은 덕성을 조금 더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운동에서 무엇인가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습하고 훈련 규칙을 잘 지키면, 그의 몸의 근육은 그가 원

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으며, 그는 조정 능력과 통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얻지 못한 통제 능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팔과 다리의 근육을 통제하는 것이 혀의 근육을 통제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눈을 운동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길에서 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듣게 되는 것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통제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과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에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본성 가운데서 가장 영속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것을 가르쳐 준 코우치였습니다.

공을 던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능력은 머지않아 인생에서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육체적인 강건은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도덕적 및 영적인 힘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시드는 것에 반비례하여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아들한테 피아노를 치게 하고 싶으면 그에게 음악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강해져 배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습과 암기를 해야 하며 그가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합니다.

만일 딸에게 어떤 언어를 배우게 하고 싶으면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게 되어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법과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발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결코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거나 쓰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도 반복되는 공부와 연습과 암기와 독서와 듣는 것과 토론이 모두 필요합니다.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과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해줌으로 교회가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대학부, 종교반이 있습니다. 또한 신권회, 주일학교, 보조 조직 공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공과 과정은 경전과 교회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발전은 교리가 들어 있는 경전에 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지식의 세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목록을 체계를 모르면 그 지식을 찾아가기가 힘들 것이며, 굉장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는 배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체계를 배우면 그 모든 책에 있는 모든 지식이 그에게 열리게 됩니다. 참으로 찾기가 간단해 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획득해야 합니다.

경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는 영원한 지식 즉 영원한 복음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에도 체계가 있습니다. 용어 색인과 각주와 각 장의 주제 설명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성경과 물문경을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이 그 보화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서 가르쳐 집니다. 교사들은 모두 합당하고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등록하지 않으면 교사도 도와 줄 수 없습니다.

사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리콘 칩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산업 시대로부터 정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대학 입학 요건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수가 줄어 들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나 대학부가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실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반죽이 부족한데 지식의 집에 벽돌을 더 쌓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신학 연구원 중등부나 대학부에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설득하십시오. 지부장님, 감독님,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은 모든 젊은이가 예외 없이 등록하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몇 안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위하여 여러분은 인생을 장식할 선택 과목을 주저하지 않고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등록했으면 참석하고,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친구들도 똑같이 하도록 설득하십시오.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모 여러분은 교사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도와 줌으로써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도움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교사는 극히 적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즉시 자녀 편에 서서 교사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경험에 의하여 배운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우리 젊은이에게 교사에 대한 불경심을 이야기하여, 그로 인해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때도 많습니다. 금년에 68개의 국가에서 18개의 언어로 20만 명의 학생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하고 12만 명이 대학부에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휴식 반이거나 아침 반이거나 가정 학습 프로그램이거나 똑같습니다. 이 과정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교리와 역사를 가르칩니다.

어떤 반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킴볼

대관장과 나는 전에 북쪽 다코다에 있는 신학 연구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과 프로젝터와 특별한 학교 의자가 있는 방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집의 아주 작은 침실에서 만났습니다.

교사인 투 독스 자매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바닥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방은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반 못지 않았습니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님의 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베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있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석했습니다. 연사 역시 젊은이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께서 상냥한 음성으로 ‘존, 존, 신학 연구원 잘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잠이 깬습니다. 그 해가 지나가면서 아침 시간이 차츰 추워지고 습기차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성은 한결같이 노래부르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 존, 신학 연구원에 잘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눈물을 삼키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훨씬 뒤에야 그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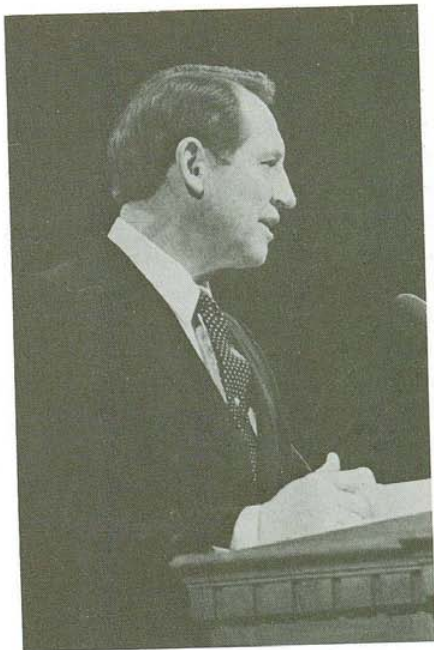
우리 자녀들이 접하게 되는 유혹은 가정이나 신학 연구원 교실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뒤에 그들이 교사와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될 것이며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가에 좌우 될 것입니다. 나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떨어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젊은 선교사를 아는데 그는 젊은 남자가 받게 되는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교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곳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 이 마지막 달에 새로 찾은 것이 있으니 곧 나 자신을 찾은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받은 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숙하고, 관심이 없으며,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한 학생들 앞에서 낙담하는 순간, 동시에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작고 중요한 영감의 음성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교성 88 : 78)

주님은 교사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침실인 제일 정원회의 하트만 베타 이세 장로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모든 인간은 이 생에서 거의 매 분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교과 과정과의 행정 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교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완전히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나는 교회의 승인된 교육 자료를 좀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의 복음 교리반 교과 보조 교재는 교사가 신약전서를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충실하고 학식이 많은 저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저술한 것입니다. 그들은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이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 개요에 대한 총관리 역원의 승인이 있는 다음에 1980년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술 위원들은 수천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저술하고 2주일에 한번씩 위원회에 참석했으며 여기에서 전체 위원들이 공과 하나하나를 비판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술 위원회의 작업을 신권 및 교과 과정과의 관리 책임자인 총관리 역원과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및 임원, 교회 편집 및 협의 위원회가 검토했습니다. 이 교재는 금년에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받기에 앞서 여러 면에서 상세하고 면밀하게 조사받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교육 자료는 준비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교사들은 보조 자료를 대하기 전에 경전과 그들의 교재를 주의깊게 연구하라는 권고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승인된 교과 과정 자료를 완전히 살펴보지도 않고 옆 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교사가 공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경전과 교재 이외의 훌륭한 보조 자료를 사용할 필요를 느낄 경우에는 먼저 교회 잡지를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사는 표준 경전과 승인된 자료와 총관리 역원의 저술을 사용할 때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하이럼 엠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분 동안 거룩한 경전을 읽는 것이 1년 동안 매달 6권의 베스트 셀러를 읽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17년 10월호, 38페이지)

나는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의한 효율적인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에 좀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가정의 밤에서거나 교실에서거나 성찬식에서거나 연차 대회에서거나 스테이크 대회에서거나 어느 곳에서 가르치게 되든지 교사는 그의 학생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영생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마음속의 열의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킴블 대과장은 교회에서의 훌륭한 교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준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회원들이 교회에 와서 분반이나 모임에 앉아 있다가 별로 크게 배우는 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매우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야 하며, 훌륭한 가르침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앤사인, 1981년 5월호, 45페이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에서 교사의 우선 순위를 사도와 예언자 바로 다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고전 12:28)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교사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동방 나라의 어떤 여행자가 마을로 걸어가 한 노신사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이 작은 곳의 정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노신사는 ‘내가 이 마을의 왕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정말로 선생님이 지도자 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이 마을의 왕이며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부자이십니까?’ ‘아니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내 학교에 다니지요. 나는 그 어린이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부모를 지배하며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요.’”(설교집, 9:39)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호, 57페이지)

회원을 교사로 부르는 신권 지도자 여러분이 자신의 스테이크, 와드, 정원회에서 가르칠 사람을 선택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우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현임 역원 교사 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때때로 공과 교실을 방문하여 가르치는 중요한 대업에 대하여 진실한 관심을 표시하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바울을 아나니아의 집으로 보내심으로써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새로 찾은 신앙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능력있는 복음 교사와 사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장소가 신앙의 광장이 되지 못한다면 교사가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생활에 영성을 강화시켜 주고 신앙을 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적인 교직자에 대한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필수적이며 유일한 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표준 견경과 이 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의 말씀을 자원으로 또한 권능으로 이용하여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에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개입시키면 안됩니다. 그 출처가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계획된 교회의 교육 과정” 유타주 아스텐 그로브의 브리감 영 대학교 여름 학교에서 행한 연설, 1938년 8월 8일, 9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옳지 못한 가르침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것처럼 교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14)

내 인생에서 위대한 교사들 중의 한 분이었

던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누구든지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고 성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침” 엘사인, 1980년 10월호, 2페이지)

교회 내에서의 어떤 교사도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공과 교실도 가정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성 68 : 25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생에서 거의 매 분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 : 77)는 주님이 주신 책임을 커다란 경외심을 갖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사실은 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복음 진리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복음 진리를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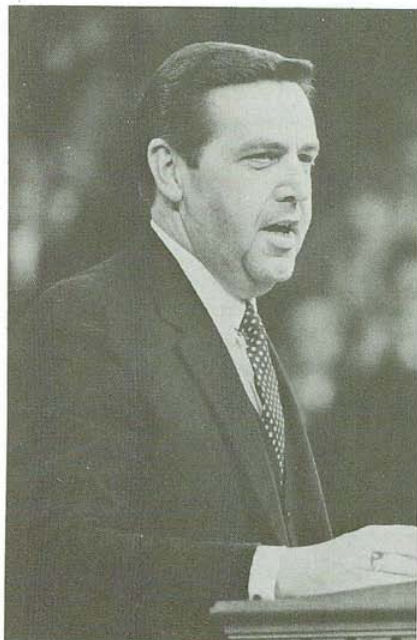
교회의 교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는 공과를 준비할 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사색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경전과 승인된 교과 과정 자료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영감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가르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 축진 프로그램은 교사가 비활동 회원에게 손을 뻗어 그들이 다시 성도들과 완전한 우정을 맺게 한 교사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이 부활절 기간에 나는 위대한 교사이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주님이시

여,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부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칠십인 계열 정원회의의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말씀 중인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인 제프리 알 홀런드

용서는 신성함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파문당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원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성 81:5)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사랑에 찬 조치는 어떤 사람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파문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용서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순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회원들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죄가 전염성이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의 친분을 제한해야 합니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우정을 맺어야 할까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보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진실한 대답을 요구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져든 그것은 범죄자 자신과 그의 선의의 뜻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게 되어 때로는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는 친지가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나는 범죄의 희생자 즉 범죄자의 행위로 상처받은 사람의 태도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예로 나는 우리 손자들을 봅니다. 가끔 그들은 싸우거나 서로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심한 말이나 행동의 희생자가 얼마나 빨리 용서하고 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놀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나는 그 가해자가 곧 그의 형제와 자매에 의해서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환영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다시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 애정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에게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대할 때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없이 행하면 그들의 감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치는 일이 없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면, 용서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회개는 용서를 가져오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즉시 서로 용서하고 그후에 서로에 대한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면, 자녀도 곧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배웁니다. 그런 가족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표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배울 때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좀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것이 그러하듯이, 용서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느리게 하고 용서는 빨리 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참을 필요는 없지만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빛의 일부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실 것이나,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니삼 13 : 14-15)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용서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를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용서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님께서는 그런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서 58 : 43)

우리는 자비를 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그 순간에 매우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를 소독하는 일에는 사랑과 이해심을 응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용서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회개의 과정에 속합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내가 맡은 특별한 직책은 대관장단을 도와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나는 대관장단이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조직하여 요약합니다. 나는 모든 정보를 그분들이 참조할 수 있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경에 관련된 자료

를 읽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편지에 담겨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마의 말씀의 참됨을 깊이 실감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 : 10) 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이 사악함과 비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죄 많은 행위를 버리고 현재 의와 행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파문시킬 때 그것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규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는 규율이 제자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학생 또는 추종자로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규율은 가르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때, 그는 친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버림받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더 큰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잘못을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과 나쁜 행위를 의로운 행동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봉사를 통하여 회개함으로써 그는 다시 회원 자격을 얻거나 침례탕에서 깨끗하게 죄를 씻고 하나님의 가족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이겨내고 생활을 좀더 낫게 변화시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적인 봉사의 전체이며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자신의 생활을 좀더 훌륭하게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죄를 자신이

좁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며, 죄인의 책임은 자기유여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거부한다면 그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의 태도가 어떻든지 그를 버리고 그가 개심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전체 인류의 죄뿐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면 안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크게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배반하거나 학대한 배우자에 대하여 그들이 품고 표시하는 원한과 증오심에 우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예로써 때때로 아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써 배우자에게 갚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참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과멸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배우자에게 굉장한 증오심을 나타내어 그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가 범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결코 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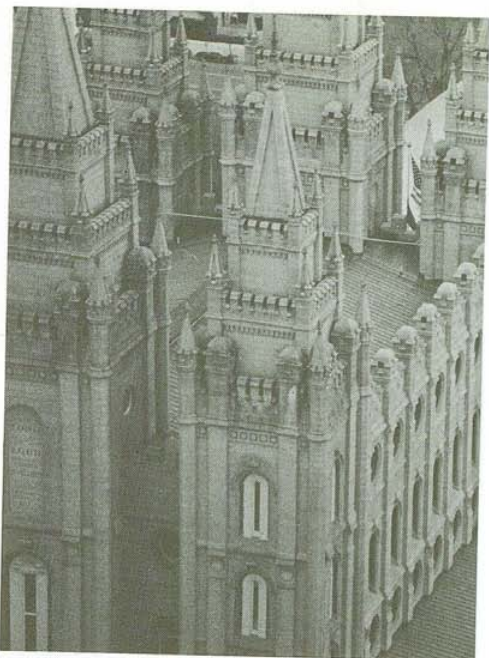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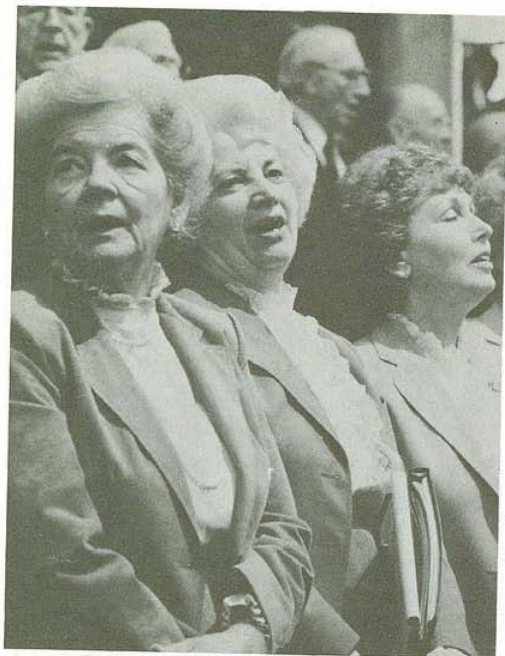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의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그리하여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일곱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태복음 18:21-22) 사람은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스스로를 문제와 곤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대의 계시에서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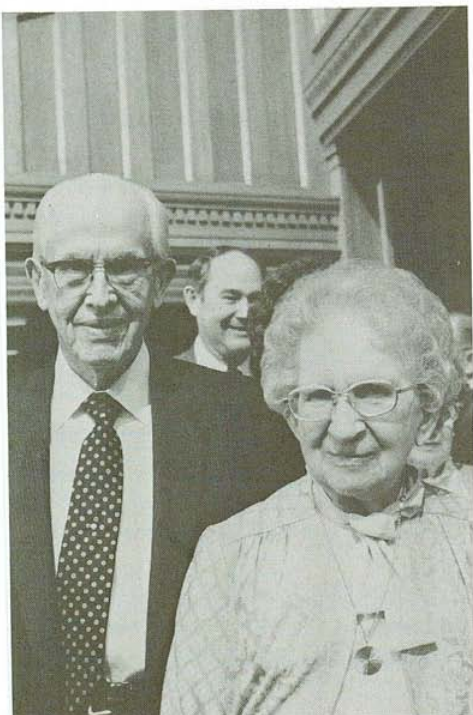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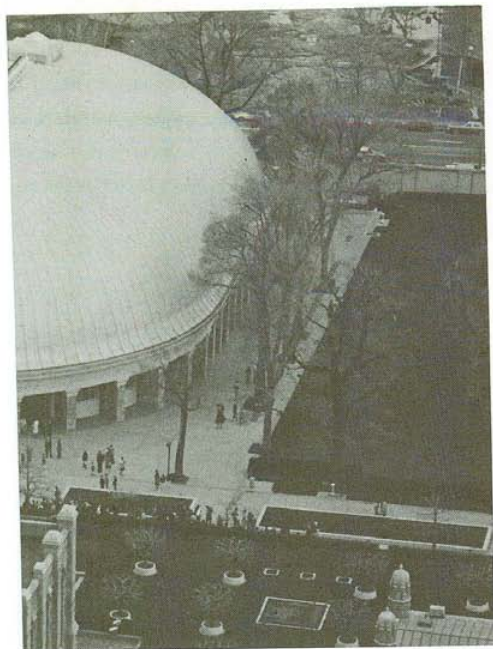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9) 나는 이 말씀이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파문당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10)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완전을 향하여 노력하면서, 용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성품에서 그런 특성을 기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뻐합시다. 그것이 위안을 주는 대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품을 길러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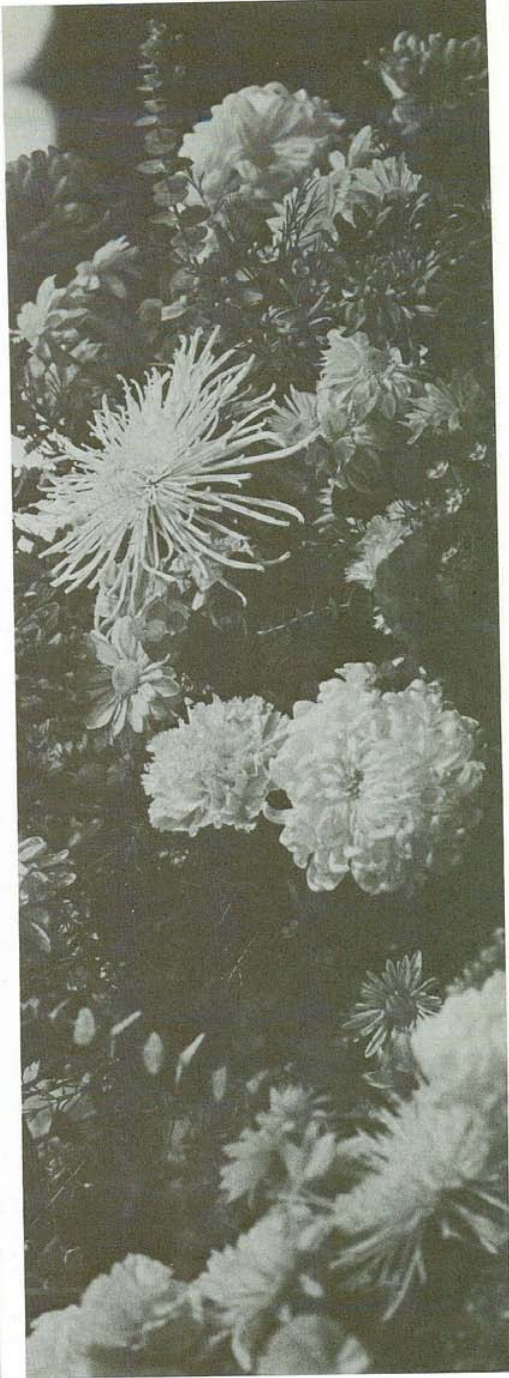




112페이지 상과 :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부초회 회장단.
 112페이지 하 : 청년 본부 회장단, 왼쪽 제2보좌인 노비 스미스 자매, 회장인 레인 에이 캐닌 자매, 제1보좌인 알렌 자매.
 113페이지 상단 : 교회 사무실 빌딩에서 본 템플 스퀘어 광경.
 113페이지 우 : 태버나클의 꽃 전시대에 봄의 아름다움.
 113페이지 하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라 테르트 멘슨 회장과 멘슨 자매



성도의 빛 / 1983년 7월호



신성 모독과 불경



테디 이 브루어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과 언사에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계명 중 어느 것을 가장 빈번하게 어기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 : 7 참조)

나는 오늘 신성 모독과 불경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 동어의 입문(469페이지)에 따르면 신성 모독, 신에 대한 불경, 저주, 외설, 거짓 맹세, 야비함, 이 모든 것이 조잡하고도 지저분한 언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과 불경함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소개된 한 젊은이에게 “내가 너를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라.” (대화편, 72페이지)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어왕에서 “나의 운명에 상처가 생길지도 모르니, 말을 좁고쳐 해봐라.” (1막, 1장, 96행)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약 실수를 저질렀다면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범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의 다른 잘

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인용집, 에머슨 로이 웨스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8, 228페이지)

온당치 못한 말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랜 세월이 걸쳐 그의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많은 주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 : 7)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골로새서 3 : 8)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경한 언사를 사용할 때 그것의 마지막 결과와 그 해가 무엇인지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예레미야 23 : 10)

맥케이 대판장은 불경한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부모는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관성 있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잡힌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경함은 가정 교육의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감탄사를 쓰는 것은 계시의 영을 몰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20페이지)

워싱턴 포스터지의 주디스 마틴은 “예절 바른 아가씨”라는 기사를 쓰는데 이는 75개의 다른 신문에 계약되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교양없는 말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손하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응시하거나 미소를 지으십시오. 나는 재빠른 대꾸나 쌀쌀한 말씨는 권하지 않겠습니다.”(피플 매가진, 1982년 8월호, 38페이지)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며,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라.”(교성 31:9)

주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하여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불결한 것입니다. 사귀는 친구를 보고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듯이 쓰는 말을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불결한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를 악 영향을 미치는 독으로 여기고 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구원의 교리, 1:13)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과 언사에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의 윤리를 가지고 있으며 진실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은 어둠 속의 밝은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언어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비회원인 사람들이 나쁜 언어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불경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필드 신문 조합의 보브 그린리가 사용한 제목과 논평을 나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제목은 “소리 공해”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되면 흔히 사회적인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는 외설적인 말이 사람들의 일상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도덕적 불손함에서가 아니라 무식고 대중 앞에서 사용된 불쾌한 언어가 사생활을 깨뜨린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납니다. 외설스러운 말을 듣는 것만으로 폭행 당

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주의깊게 말을 선택합니다. 어떤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폭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건 말에 불과해.’ 그러나 말은 전달 수단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경스러운 메시지는 예의 바른 행동에 대한 추하고 공격적이며 무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음란이 이제 라디오의 어떤 유행가에서 들려지고 있으며 몇몇 잡지나 신문까지도 5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흔히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자유인가요? 추한 언어가 우리들 사회의 그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사람이 어디를 향해도 이로부터 도망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유로우며 누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이 관념적인 폭행과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은 사람을 교양시키기는 커녕 꼬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들 가족 중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낙관론자여야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발전하지 못하며 행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방식은 믿음을 가진 낙관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향상적이며 품성을 높여 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 밖에 있던 가장 발전적이며 행복하고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7)

우리들은
• 제물해야 합니다

- 교화해야 합니다
- 향상시켜야 합니다
- 격려해야 합니다
- 고양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건설적이 되고 고양시켜야 합니다.

이제 격려하고 향상시키고 교화함에 대해 내가 읽었던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29)

“서로 다루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

“.....너희 말은 서로 덕성을 부돋움에 이바지하게 하라.”(교성 136:23-24)

끝없는 성공이라는 잡지 1982년 12월호에서 드윌트 체핀은 단지 긍정적인 감정을 창조하는 결정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비스업은 고객이나 손님의 마음 속에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 사람은 그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평균 열 사람에게 자기의 불만을 말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서비스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은 그 긍정적인 감정을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어쨌든 보다 빨리 전해지게 되는가는 명백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향상되어야 하고 긍정적이 되어야 할 보다 많은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불경한 말은 결코 덕성을 계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 작가의 다음 표현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내 자신을 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더 위대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향상시켰으며 그들이 합당하게 되어야 할 그러한 자들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동료들은 요셉 스미스 때문에 보다 위대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훈련시켰으며 격려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대관장들이 그러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관장들로 인해 보다 위대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나 다른 기관을 끄집어 내리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진리를 외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들을 표현하도록 허용합니다.

대관장단의 형제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깨에 가장 무거운 짐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은 침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훌륭한 자들이 되어 나오게 합니다.

주님의 권고는 대단히 명백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이사야 28:23)

우리들은 경전을 읽을 때 정말 귀 기울여 듣습니까? 정말 그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그의 뜻을 행합니까?

여기에 주님의 권고를 듣고 행한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1974년에는 단지 여덟 내지 열 명의 브라질 사람들만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볼 대관장은 보다 많은 선교사를 요청 하였습니다. 1979년 중반에 브라질은 5백 명의 지역 복음 선교사를 갖게 되었고 멕시코는 7백 명이 넘는 선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 전 중미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장로가 천주교의 베네딕트 교단의 한 신부를 내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심층 연구를 하게 되어 다른 몇 사람

들과 함께 243개의 다른 교회를 연구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 교회의 높은 수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목적으로 카톨릭 교회에 의해 명령되었으며 그들이 243개의 교회에 대한 유사성을 알아서 결합하고 유대를 갖을 가능성이 있나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조사 결과, 그들은 최소한 두 개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1.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 하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다.

2. 옛날의 모든 예언적 말씀을 따르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의 모두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것은 몰몬들이었다.

이 신부는 몰몬경을 공부해 보라는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신성한 확신을 갖고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교회, 그의 교회에 들어와 침례 받음으로써 구세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지금 중미에서 대제사 그들의 활동적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에 의해 교회의 고상하고 교화적인 영향을 받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북부 유태에서 최근 2년간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없는 한 저명 인사는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여 불경하고 조잡한 언어가 널리 쓰여지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어디에서 추잡하고 조잡하며 외설스러운 언어를 듣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우리들의 집에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전 다음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은 정신을 양양시키는 피난처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제심은 어떤 사람을 대중들로부터 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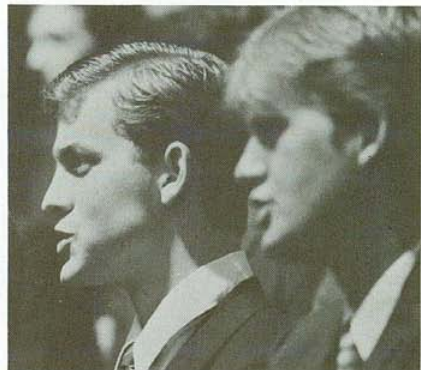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특성입니다.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언어를 저질스럽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낮추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가 쓴 불경한 논평을 결코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서 우리는 자제에 대한 이같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의 높이는 그의 자제심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실패의 깊이는 자기 방종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외의 다른 한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영원한 정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제왕이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킵블, 인용,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6월호, 525페이지)

우리 모두가 한 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혀와 말을 지배하며 단지 향상하고 정신을 양양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예언자가 계시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유일하게 진실되며 살아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보다 높은 영성에 오름



제이콥 디오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급함과, 비판, 불친절함과, 자존심, 탐욕스러움, 그리고 좌절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영성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는 유서깊은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최근 내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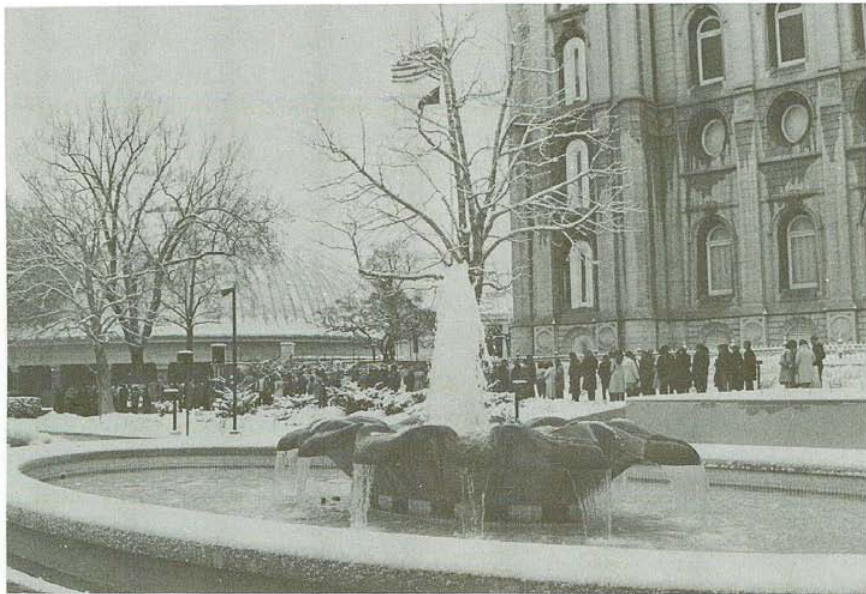
지명받고 방문했던 허리케인, 유타, 그리고 웬델, 아이다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느낍니다. 내가 방문했던 그곳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나는 간증을 나누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인간은 하늘의 신비에 놀랐고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기록된 기구 비행은 1783년 프랑스 리옹에서 몽골피 형제에 의해 띄워진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조금 후 파리의 블로뉴 숲에서의 최초로 알려진 유인 비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2백 년 후인 1983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달에 갔다 왔으며 먼 혹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22,300마일 위 지구 궤도에 300여 가까운 위성들이 텔레비전, 텔렉스 통신, 학술용, 그리고 기상 관



측을 위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어제와 지난 밤의 신권회에서 우리들은 50만이 넘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위성 중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술의 혁신은 기구 비행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기구 여행은 조용히 비행하는 동안 인간에게 공중으로의 비상과 영적인 고양은 물론 사람들이 사는 지구에 대한 최초의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주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단 한번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구 여행의 유패함을 맞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조국인 네델란드에서 2차 대전 직후의 흥분된 시기 동안이었는데 5년 간의 전쟁 뒤에 되찾은 자유를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큰 시가 행진이 있었고 이웃간의 댄스 축제가 있었으며 어떤 도시에서는 다른 경축 행사에 끌려 있는 많은 군중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사람을 태운 기구 비행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비행을 준비하면서 기구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행을 언젠가 기상 조건이 적합하면 나를 태워 줄 것이라고 그는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배우는 동안 기구가 석탄 개스로 채워지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것이며 그 무게가 주위의 공기와 평행이 될 때까지 그것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기구 밑에 달린 고리버들로 만든 광주리 속에는 항공에 필요한 기구들, 지도, 모래 주머니가 들어 있으며 이 모래 주머니는 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개스가 밸브를 통하여 기구에서 빠져 나오면 기구가 내려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또한 내 친구로부터 이전의 기구 여행에 대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번은 비행 도중에 기치 앞었던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속의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구를 하강시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시골 길을 걷고 있는 한 네델란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시선을 끌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갔을 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쓸쓸히 가던 그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입을 두 손으로 모아 외치기를 “당신네들은 기구 속에 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분명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 급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기구 속의 한 사람이 다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목청을 돋구어 대답하길, “나는 땅 위에 있소!”라고 했습니다.

실망한 기구 여행자들은 약간의 모래 주머니를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구름 속으로 비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밑에 있는 그 사람은 관료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임에 틀림없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제 나는 기구가 계속 떠오르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상승간에 강한 유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채울 개스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적인 동기로 가득차야 합니다. 모래 주머니를 밖으로 버림으로써 기구가 보다 높이 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적으로 그가 떠오르는 것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모래 주머니를 자신으로부터 기꺼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구 비행을 했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도 나는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던 그대로 남아 있는 인상을 받았으며 세상이 가만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는 새 회원으로서 살아 있는 참된 복음의 환경 속에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평화로운 느낌을 가졌으며 그리고 바빌론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초기 유럽의 한 기구 여행자가 표현한 다음 말과 같았습니다. “나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걱정을 내 뒤로 떠나게 한 것처럼 느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영적 단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래 주머니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꺼이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은 생을 통한 여행을 마친 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쉽게 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우리의 모래 주머니를 제거하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보다 인내하는 것을 배웁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참고 견디라.”(교성 67:13)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인내심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나는 간단한 정의를 제시하겠습니다. 인내심이란 여러분의 성급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라고 불리우는 모래 주머니를 아직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신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교성 88:124)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신의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잘못이나 결점이 우리들 자신의 가장 작은 결점 중 하나에 비하면 우리에게 거의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더우기,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구니 속에 불친절함이 든 모래 주머니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나의 친구니라.”(교성 84:63)

우리가 영적인 비행을 하는 동안은 자존심이라는 모래 주머니를 완전히 비웁시다. 그리고 항상 구세주의 모든이에게 한 영광스러운 약속 “너희가 내 앞에서 겸손하면 왕국의 축복은 너희 것이니라.”(교성 61:37)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보다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의 모래 주머니를 내버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기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경전은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화 있도다.”(교성 56:16) 그리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무료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좌절이라는 모래 주머니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개인의 영적인 기구의 바구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좌절, 이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 대회 중에 이 연단으로부터 이미 두 번이나 그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인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니라.”(교성 3:1,3)

우리들이 현재의 영적 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래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해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키고 교회의 가르침 대로 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교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을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땅 위의 수준에 있다면 줄을 끊어 봅시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끊임없는 영적 유동성을 크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구는 정말 아주 높이 올라갈 것이고 다음에는 꺾꽂이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래 주머니를 버릴 필요가 있는가 알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줄을 끊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모래 주머니를 던지는 일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구 여행은 하나의 요구이며 때로는 어려운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끈기를 지닌 사람만이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행, 항해, 상승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끝으로 땅 위에 내려오는 데 대해, 약간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음성을 듣고 있고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기구의 바구니를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여 놓았지만 단지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뒤에서 붙들고 있는 줄을 끊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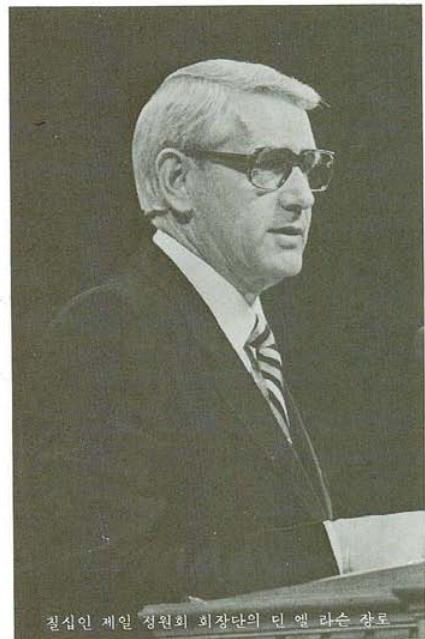
같은 높이에서 거의 뒷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떠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래 주머니를 가까이 바라보십시오.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비행을 제지하는 중량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엄숙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양시킴으로써 영적인 도

취감을 맛볼 것입니다.

23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침례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는 간증합니다—내가 침례받은 이후부터의 나의 비행은 참으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꺾꽂이 놀랄만한 광경과 영적 전경,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매일매일의 나의 비행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진실입니다! 어찌든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온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꺼이 그가 계획한 비행 계획에 따르려 한다면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준비하시는 위대한 중재자이십니다. 이에 대해 나는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질십인 제일 정원의 회장단의 디 엘 라슨 장로

자녀 양육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자녀에게 심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자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힘있는 도구는 사랑입니다.”

잠언의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최근 어떤 시사 간행물에서 “방치된 우리 자녀들에 관한 기사를 읽는 동안 내 마음은 혼계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기사는 “부유한 어린이들이 대체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부모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지만 부모는 분명한 나날의 일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칭 청소년을 사랑한다는 나라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호된 시련이 되고 있다.

“부모가 이혼이나 편모 또는 편부로 지내

거나 이중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곤란한 경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이 나라의 47,600,000명이 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단순히 방치 상태에서 학대받기까지 여러 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에드워드 위버의 말을 인용하여 “부모들은 가치관이 상충되는 와중에 휩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자녀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시간, 여러 가지 물질, 지위, 직업과 다른 것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많은 경우 그들은 자녀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공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82년 8월 9일자, 54페이지)

이 나라의 경계 밖으로 여행하면서 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한 조짐입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많아지고, 부모 중 한 쪽만 있는 가정의 늘어나며, 사생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에게는 점점 더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용한 그러한 기사는 나를 몹시 울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즐겁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즐거움은 내게는 언제나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와 손자녀들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 아기의 출생의 기적을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는 그 일을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전화가 걸려 와 받아 보니, 저쪽에서 사위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지금 린다 게이와 함께 병원에서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병원으로 달려가 축하

를 합니다. 거기서 이 축복받은 기적, 곧, 자신의 아이를 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요람에 있는 아기를 팔에 안아 줍니다. 사위는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는 아기의 코가 제 엄마와 닮았다는 것부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턱과 입은 아빠를 닮았다고 하겠지요. 또 그는 손을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손은 확실히 페리가 쪽을 닮았어요. 보세요. 손이 얼마나 큼니까!”

우리는 이 축복된 사건을 목격하고 새로이 부모가 된 이들의 인생에서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실감하게 되며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이 샘솟는 듯 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녀 양육에 관한 권위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게도 시련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은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이 말씀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주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하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와라 여호와와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라.” **출 34:6-7**

신약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물론경은 훌륭한 부모의 교육을 믿는다는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일 1:1)

이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가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성 68:25)

내가 새로 아버지가 되었을 당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교회 대관장으로 계시던 때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그분은 늘 명백하고 딱 들어맞는 충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영적인 과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필요한 근본적인 원리에 주의를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첫째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힘있는 도구는 사랑입니다. (인스트럭터, 제84권, 1949년 12월호, 620페이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볼도록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부모들에게 이 같이 가르쳤습니다.

“부모인 우리들 각자가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꼼꼼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본받아 따라 하기를 원하는 모범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합니다.”(설교집, 14:192)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몸소 신

양을 실천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분의 축복을 간구하며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신권을 행사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성찬식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왕국 건설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기쁘게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분께 십일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신앙과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말일성도를 위해 특별히 꾸며진 기사에서 자녀들에게 낭독을 해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한 점에 관한 연구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꾸준히 책을 읽어 주면, 자녀는 학교에 들어갈 때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특히 저학년에서는 읽기가 뛰어나게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조기 교육이 자녀 학습의 속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 주며,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어린 유년기에 주님과 구세주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심어 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맥케이 대판장이 우리에게 말씀한 두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물론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신앙과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침례받은 후에는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과 자녀들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이전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조상들에게 인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훈만이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 주어 가르쳐야 합니다.”(대회 보고, 1948년 10월, 153페이지)

나는 언제나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에 감명받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나는 장시간 일을 하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다. 나는 내 가족에게 다소 소홀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 아들은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쏟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내 주의를 끌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집에 돌아오자 그 애 엄마는 그가 최근에 새로 고안해 낸 몸뚱 장난을 보여 주겠다고 그와 더불어 나를 아래층으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는기가 죽어 식품 저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그가 우리의 비축 식품에다 창 던지기 연습을 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로 하여금 우리가 집안 일에서 그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는가의 한계를 찾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에 관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에게 적당히 관심을 표명하자 그는 참으로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에서 어려서부터 특히, 주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맥케이 대판장은 우리에게 사랑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여 그의 지상의 성역의 마지막 시간에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써 봉사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 34)

나는 최근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인쇄

의 가치에 대해 쓰여진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는 사람이 계절풍이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계절풍은 와서 사납게 불다가 지나간다. 어린 아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곤란하다. 어린이가 성장하여 참다운 인간과 함께 하려면 사랑을 충만하게 지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이는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세상에서의 그의 위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왔다가 가버릴지 모르지만, 사랑이 깊은 사람은 마치 태양처럼 결코 자신의 내재된 따뜻함을 잃어 버리지 않는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1년 6월호, 164페이지)!”

얼마 전에 나는 병아리 실험에 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읽었는지 그 출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 암탉들에게 일생 주기를 통해 자라나는 동안, 먹이를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탉들이 다 자라 성숙하자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내야 하는 병아리 우리에 넣어졌읍니다. 병아리 적부터 먹이를 찾아 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다 자라 암탉이 되어도 그 능력을 갖지 못하며 비록 바로 땅 밑에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쪼아 먹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인생의 초기에 사랑하는 능력을 가르침받지 못한 어린이와 이 사례를 비교해 나갔읍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는 그 특성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명상하며, 영원한 인간의 가치, 특히 부모인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

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까?

네브라스카 대학 닉 스티벳 박사는 가족 관계에 관한 전국 영의회 연례 모임에서 매우 재미있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가정의 특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훌륭한 가족은 놀고, 일하며, 먹고, 오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가족이 모두 바깥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 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찾습니다.

2. 훌륭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공동된 동기로 함께 일할 능력을 가짐으로써 각 가족 구성원에게 수준 높은 일이 맡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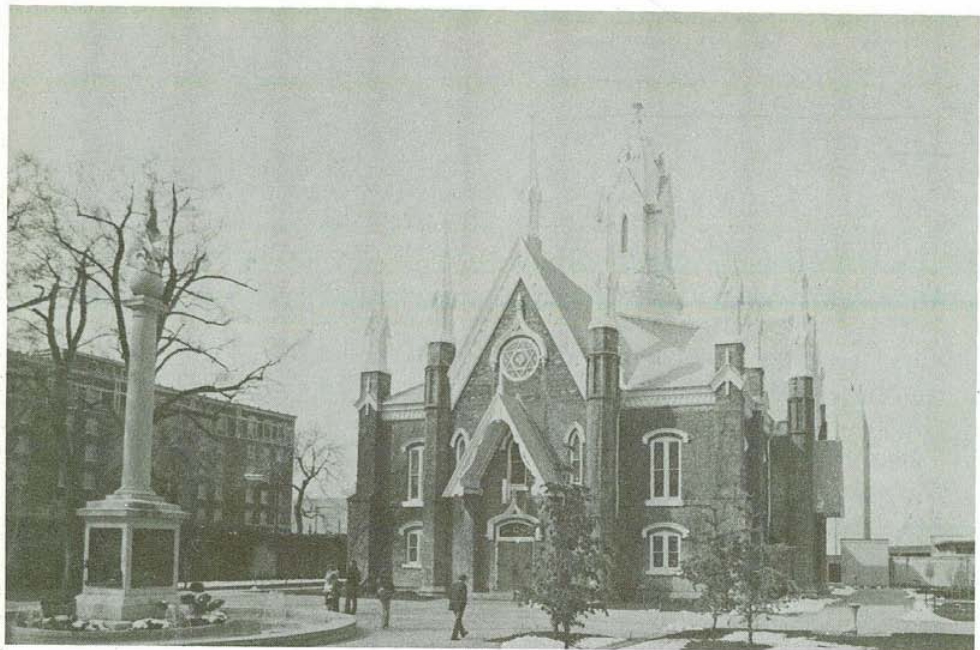
3. 훌륭한 가족은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귀기울이는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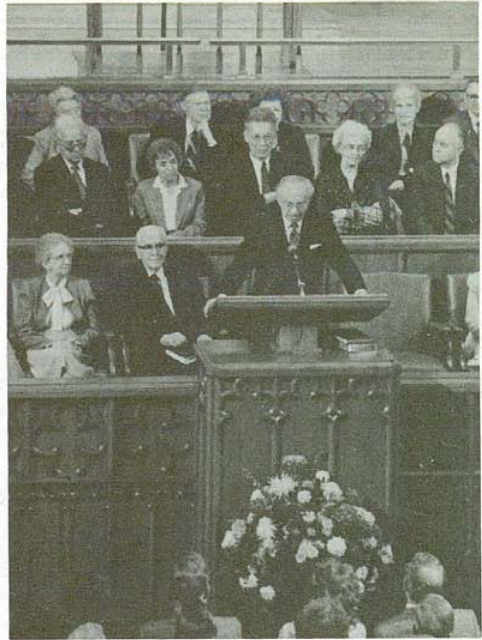
4. 훌륭한 가족은 종교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지도합니다.

5. 훌륭한 가족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임하며, 의사소통의 체계가 원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훌륭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피상적이 아닌 순수한 칭찬을 자주 해줍니다. (“훌륭한 가정에 관한 조사”, 가족의 힘을 키움: 행동의 청사진, 닉 스티벳, 링컨: 네브라스카 대학 출판사, 1979년, 23-30페이지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봉한 우리는 훌륭한 가족 단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앙심과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





126페이지 상 : 뎡플 스페어에 있는 100년된 어셈블리 홀을 완전히 수리되었다.

126페이지 하 : 어셈블리 홀을 재헌남 의식 계서 회중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고든 비 힐플리 부대관장과 힐플리 자매.

127페이지 상 좌우 : 어셈블리 홀을 재헌남 의식 중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고든 비 힐플리 부대관장.

127페이지 하 : 말씀하시는 철심인 정원희 회 불단의 지 호머 더럼 장모(우하).



“선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제님들은 우리가 하루에 부음서 한 장씩을 읽을 것을 주장하십니다—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 물몬경의 니파이 삼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권고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그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진심으로 실망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은 고령과 살아오신 혹독한 생애에 결과적인 현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서 옷을 입으시고 우리들은 그분과 자주 의논하곤 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롬니 부대관장님이 이 일을 대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이 지난 10월의 신권회 모임에서 “그들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남겨 두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

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섬으로 멕시코와 중미,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에 있는 집으로 그리고 미국 땅을 횡단하여 갈 것입니다. 이 지상에 뻗어 나가고 있는 이 사업의 기적을 결코 나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요셉 스미스가 열 일곱 살이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말씀에 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밤중에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분(모로나이)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 입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이서 33절)

우리들은 오늘 이 집회에서 그 놀랄 만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이 교회는 위대한 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친 이 사업의 놀라운 성장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과 충실성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관계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친구들의 집단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천황이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를 위한 오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세 부부와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그들은 일본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일로, 사업차,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한 두 번씩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네 사람들과 같은 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기 살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심각한 문화적 차이와 고독 그리고 향수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정이 오면 언

제나 즉시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당신 교회 회원들은 언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자기들을 반갑게 맞아드리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은 당신네의 종교적 집단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즉시 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충격이나 고독감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여러 번 그것에 관해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말일성도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환영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일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서로를 믿는 자들이며 그의 위대한 목적 안에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동료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며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애, 자매애의 정신이 약화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입니다.

자,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석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 우리의 영을 음악으로 높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음미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다 온전히 복음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갑시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13)

이 신앙개조는 우리의 신학의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이 훌륭한 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그 간단한 조항 속에 밝혀진 많은 가치를 상기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또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가족이 그 신앙개조를 적어서 온 가족이 매일 볼 수 있는 거울에 붙여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하찮은 일 부정적인 일 혹은 부도덕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힐 때 이 위대하고 우리의 행동 윤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한두 개의 변명으로 우리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행동의 어떤 요소를 합리화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과 악 사이의 영역은 회색 빛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우리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는 물문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로나이의 아름다운 말을 읽도록 권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나이서 7:16)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읽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는 우리의 신학과 믿음의 중추가 되는 분이십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의심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책임이 있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형제님들은 우리가 하루에 복음서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물문경의 니파이삼서를 한장씩 읽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리스

도가 미대륙에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니파이삼서 11장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여 모든 진실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조화의 정신을 기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열과 성을 다하여 완수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다면,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데 있어 주님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분명한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는 그 성약을 지키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가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결론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오래전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던 다음의 위대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선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 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서 6:33-34, 36)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이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 그리고 총관리 직원인 모든 형제님들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분들의 지지와 헌신적인 봉사와 신앙에 대해 나 자신의 감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행한다면 그가 하시려는 대로 하나님께

서 여러분을 너그러이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나는 내 간증과 증거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며 살아 계시는 인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상에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일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대회와 관련된 뉴스

지도자 모임에서 거론된
개인 및 가족의 자립

4월 연차 대회의 지도자 모임에서 기본적인 교회의 복지 원리가 재차 단언되었다. 그 모임에는 전세계의 교회에서 모인 총관리 역원, 지역 대표 및 스테이크 부장, 또는 그들의 보좌들이 참석했다.

그곳에서 제시된 여러 가르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개인 및 가족의 자립심, 영적인 성장 및 기독교인의 봉사 정신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수정안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의 경제적 및 영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신권 정원회, 워드 및 스테이크에서는 개인 및 가족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일년치 식물을 비축하고, 가정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돕는 데 더욱 노력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또한 신권 지도자들은 궁핍한 회원들을 도와 주기 위한 "관대한 금식 기금"을 포함한 금식의 법의 중요성을 가르침과 모범으로써 재강조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교회 회원들은 전통적으로 한 달에 한번은 두끼를 계속해서 금식하여 음식과 음료를 금하며, 그 식사비에 해당되는 비용 또는 가능한 한 그 보다 훨씬 후한 금식 기금을 궁핍한 사람을 위한 기금으로 바치라는 권고를 받아 오고 있다.

수정안이 발표된 것은 "1936년에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 유명한 연설을 한 이래, 복

지 사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말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의 내용은 전혀 변화되거나, 감소되거나,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됩니다."라고 몬슨 장로는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에 이르는 방법은 시간이 변하고 계시가 계속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복지 사업의 범위를 토론했던 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시대에나 그 목적은 개인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처음 시작된 이래로 복지 프로그램에 있었던 변경 사항을 압으로써, 우리는 히틀리 부대관장이 발표하신 수정안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로 맺어져 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복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예언자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내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회원들이 자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교회의 예비 프로그램에서 자원을 쌓아둠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안정감을 갖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회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교회 회원 중의 극소수에 한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로,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브라운 감독은 회원들이 바치는 후한 금식 기금에 의지하는 것은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남의 법에 따라 살도록 명하실 때 그에 따라 생활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인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장로는 새로운 발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교회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인 자원과 개인적인 자원을 활용하도록 격려하며 그런 다음 다른 사람도 자립하기 위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파이언스 장로는 각 가정의 아버지와 가장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전 연구나, 기도, 가족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또는 신권 정원회, 상호 부조회, 기타 교회 보조 조직에서” 복지 원리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파이언스 장로는 “일하는 형제애”로써의 신권 정원회의 개념을 말했다. 정원회 회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역 신권 지도자라면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취하겠노라고 말했다: (1) “현실적인 면에서 구명대”를 입는다. (2)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인적 자원을 열거하였고, 그의 능력을 평가한다. (3) 정원회 회원의 필요 사항을 생각한다. (4) 정원회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가르치고 도와 준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인 바바라 비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신권 지도자들을 도와 이 새로운 단계의 복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회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은 상호부조회와 가족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가르침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할 토대를 마련해 주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숙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은 이 훌륭한 사업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복지 문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는 다음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이 맥스웰 장로는 어떻게 하면 신권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지도할 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 회원들에게 주님의 사업의 근본 목적이 어떻게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회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의 단순성은 우리 교회 행정 및 프로그램의 단순성과 서로 어울리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맥스웰 장로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위임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지치지 않도록 말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휴식하고, 새롭게 하고, 고독과 명상에 젖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했다.

맥스웰 장로는 더 나아가 주요 신권 지침으로써 사랑의 원리를 강조했다. “역사의 교훈은 오래 참음과 설득과 사랑과 온유함과 친절함이 인간의 행위를 기꺼이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날 아침 일찌기 지역 대표 세미나가 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다. 그 세미나의 진행 사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맡았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주 연사였다. 힝클리 부대장은 주요 연설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부도덕한 악덕을 선동하는 자들의 꾀변과 마찬가지로, 도박 선동자들의 꾀변은 아주 그럴 듯하고, 상당히 큰 흠을 내게 됩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도박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비효과적인 방법이며, 게다가 부도덕한 것인지 입증되었음을 말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대관장이 병중이므로, 자신이 대관장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 있음을 밝히고, 대관장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교회의 선교 사업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을 촉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문호 개방에 관하여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한다면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함과 선교 사업의 축복 및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회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밀거름이 되어 일생 동안 상당한 배당금을 가져오게 되고, 영생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교 사업은 그 결과에 있어 영원한 것입니다. 참되고 현신적인 교사에게서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후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또한 신권 사업에 대하여 토론했으며, 다음 달에는 다섯 개의 신전이 헌납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축복받게 될 것임을 밝혔다.

지도자들의 필요성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지도자들도 기꺼이 배우고자 하며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들은 신념을 주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력에는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관심사에 개인적이며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무릎 꿇고 인간이 자연히 소유하게 되는 능력보다 더욱 큰 힘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그들이 그처럼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빛과 진리 가운데 걸을 때 그들의 생은 풍요롭게 될 것이며,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1939년 10월에 행한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토론했다. “그는 예언자로서 말씀했으며,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자로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그들의 머리 위에 성취될 것과 그들은 지혜와 빛과 지식과 예지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커지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와 복음의 지식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주시어, 우리의 생활이 그 진리를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의 주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인 칼로스 이애시 장로와 딘 엘 라슨 장로가 “교회 예배를 위해 청소년들을 준비 시킴”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오늘날의 문제에 대처하는 힘을 주는 것으로 가족 및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의 밤과 경전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런 다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헤이트 장로는 교회 회원들의 활동 촉진에 관하여 토론했으며, 그 뒤를 이어 엘 토펜리 장로는 교회 평의회에 대하여 토론했다.

하루에 한 장씩

모든 회원들은 사복음서와 니파이삼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권고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마 11 : 29)라고 권고하셨다.

최근에 막을 내린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원하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한 가지 안을 제시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경전을 읽는 습관을 우리 생활에서 확고하게 세우도록 합시다. 그는 우리 신학과 우리 신앙의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들은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이심을 아무런 의심없이 확실히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형제들은 우리가 복음서, 즉,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물론경의 니파이삼서 특히 이 서반구에 있던 니파이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기록을 알 수 있는 니파이삼서 11장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깊이 참여해 보고 싶고, 여러분도 그에 따르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계획은 간단한 것이다.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및 요한복음까지 하루에 한 장을 읽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89장이므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89일, 즉 3달이 걸린다.

사복음서를 마치면, 총관리 역원들은 우리에게 “제 오 복음서”로 불리는 니파이삼서를 읽도록 권고하는데, 그 책에는 30장이 들어 있다. 물론경의 위대한 말일의 목적은 영감받은 표제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니파이삼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간증”이며, 그가 육신으로 그리고 초기에 부활한 몸으로 행한 성역과 관련된 가르침의 또 다른 간증이다. 1983년에 니파이삼서 읽기를 끝내는 것은 말일성도 성인들의 1984년도 경전 학습 교재인 물론경을 공부하는 데 준비가

된다. 물론경 전체를 연구하기에 앞서 니파이삼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성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으로 물론경의 핵심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성인들은 1983년도에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과 멜기세벳 신권 정원회 분반 모임에서 사용되는 신약의 경전 연구에 보탬이 된다.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 : 22)라고 주님은 말했다. 현명하게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그의 생활과 가르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간증을 매일 읽음으로써, 우리의 이해력은 커지고, 신앙이 자라며, 매일 힘을 받게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단지 119장에 지나지 않는다. 119일로 우리의 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대회 방문자